

# 리아호나



개척자: 그들의 영웅과도 같은 삶,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  
20, 28쪽

십이사도:  
범지구적인 부름이면서 개인적인 성역  
12쪽

불안을 극복하며,  
한걸음씩 봉사하는 길  
22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 인도 벵갈루루





인도의 교회에 관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  
벵갈루루에 성전 건축이  
예정되어 있음



교회 회원

13,570

43



—————  
와드 및 지부  
(사진의 중간에  
컨벤트로드 와드의  
집회소가 있음)

선교부

2



5

—————  
인도에서 몰몬경이  
번역되어 있는  
언어의 수

인도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

22



1851

—————  
몇 명이 침례를 받고,  
작은 지부가 콜카타에서  
시작되다.

1993

—————  
13개 지부와 회원 1,150명이  
있는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가  
세워지다.

2007

—————  
인도 뉴델리 선교부가  
세워지다.

2012

—————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에 의해  
하이데라바드에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서로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8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늘날의 십이사도  
세라 제인 위버,  
제이슨 스웬슨

12

## 하늘에서 저를 도우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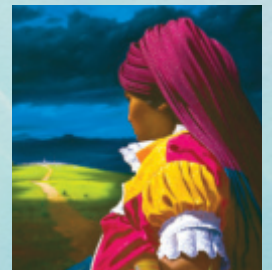
**거**룩한 사도 직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분을 인터뷰하는 것은 좀처럼 얻기  
힘든 특권이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12쪽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이신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을  
만난 후에 나는 그분의 집무실을 돌아보았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연차 대회 말씀을 적고 계셨다. 벨라드 회장은 1976  
년에 칠십인 제일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으셨으며, 가장  
오랜 기간 봉사하고 있는 총관리 역원이다. 그분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활력이 넘쳐 보였다. 회장은 인터뷰 때  
내게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신 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친절한 권고도 잊지 않으셨었다. 그야말로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삶을 주님께 대한 봉사로 바치는 부름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그 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십이사도는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기  
위해(교리와 성약 107:33) 부름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들의 초점은 전 세계의 교회에서 자신들  
앞에 있는 개개인에게로 옮겨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높은  
칭송을 받는 지위에서 내려와 사도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집무실에서 나올 때마다 내가 그들에 관해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다. 그들은 겸손하고 친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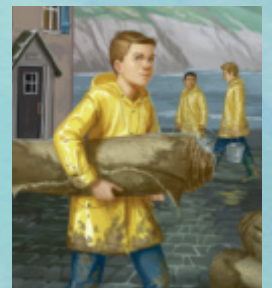
벨라드 회장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저는  
자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훌륭한 분들과 이곳에  
있게 되었지?’ 하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간증하셨다. “하늘에서 저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도 사도의  
부름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즐기기를 바란다.

세라 제인 위버  
교회 소식 편집자



지금도 계속되는  
개척자들의 유산

20



더욱 거룩한 봉사의 방식  
패트릭 키아론 장로

22



- 5 **종교는 우리의 삶과 지역 사회를 축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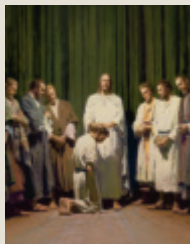
종교는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사회, 건강,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6 **신앙의 초상: 이오나 위카이라— 뉴질랜드 카이코헤**

이오나는 자신의 표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녀는 구주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

- 8 **성역의 원리:**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서로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포용하는 태도를 기쁨으로써 외로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 12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늘날의 십이사도**  
*세라 제인 위버, 제이슨 스웬슨*  
현대의 사도들이 그 신성한 부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눈다.
- 20 **지금도 계속되는 개척자들의 유산**   
여러분이 받은 개척자의 유산을 어떻게 기리고 나눌 수 있을까?
- 22 **더욱 거룩한 봉사의 방식**  
*패트릭 키아론 장로*  
성역은 교회 회원을 정의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28 **부대를 모으라**  
사전 공개되는 『성도들』 제2권의 발췌본. 교회의 초기 회원들이 서부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어린이와 한 약속이 축복이 된다. 가족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로 평안을 얻다. 충격적인 일에서 감미로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 어떤 일로 깨달음을 얻다.
- 36 **자립에서 오는 축복 일자리를 얻기 위한 여섯 단계**  
*브루노 베셀 3세*  
여러분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얻는 여섯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짧은 기사



표지  
「십이사도들  
성임하시는 그리스도」  
해리 앤더슨

섹션

청년 성인

42

선교 사업을 하다 조기 귀환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구주의 도움으로**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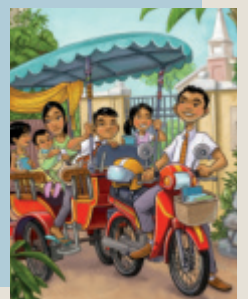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사막이 영적인 안식처가 된다. 편지 한 통이 최고의 선물이 된다. **여러분이 물문경에서 찾게 될 것들.**



어린이

친구들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운다. 캄보디아에 사는 회원들에 관해 읽는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온라인 전용 기사



#### 좌절을 극복하면서 자립 지원 서비스

인생은 시련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기쁨과 희망을 다시 찾을 방법은 언제든지 있다.



#### 조기 귀환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캐빈 테리엇 박사

조기 귀환 선교사들은 우리의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2019년 7월호, 제56권, 제7호  
리아호나 1860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라셀 엘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사도 정원회:** 려 렉셀 벨라르, 제프리 알 율런드, 디아터 예프 우흐토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이 이스티븐슨, 데일 지 렌랜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펠그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기 크레이븐,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웨런 윌버그,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처, 에릭 더블유 코우피슈케,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휘트  
**교회 잡지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번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올슨  
**관리 부편집인:** 리아엔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마리아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개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젠슨, 에런 존스턴,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예릭 비 머독, 샬리 존슨 오메카코,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처드 엘 몸바, 민디 셉루, 로리 풀러 소사, 차렐 워틀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알렉산드라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밴틀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우이, 예밀리 차에코 레인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소피아 스파나우스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책임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아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레이 넬슨, 머리사 엠 스피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버커  
**우편 주소:** Liahona, Fl. F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관:** 제640호, 제56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화출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갈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ly 2019 Vol. 43 No. 7.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여러분은

- 최신 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 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문의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질문과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 종교는 우리의 삶과 지역 사회를 축복한다



## 신

양과 종교는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신앙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교파와 기타 종교의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제시된 연구 결과는 종교가 우리 삶을 드높이는 많은 방법 중의 한 예에 불과하다.

## 관계



## 종교적인 사람은

▶ 자원봉사를 하거나<sup>1</sup>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sup>2</sup> 동호회 및 그룹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sup>3</sup>

▶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안정적인 결혼'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확대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맺는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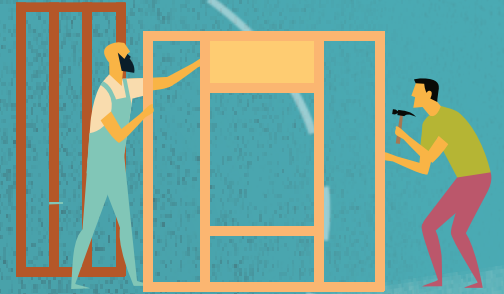
▶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혼을 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우자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을 표현한다."<sup>5</sup>

▶ "약 3분의 1 정도가 ...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다."<sup>6</sup>

▶ 우울감의 정도와 불안감이 더 낮다.<sup>7</sup>

▶ 종교심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sup>8</sup> ■

## 지역 사회



## 건강



### 주

1. See Arthur C. Brooks, *Gross National Happiness: Why Happiness Matters for America—and How We Can Get More of It* (2008), 52.
2. See Rodney Stark, *America's Blessings: How Religion Benefits Everyone, Including Atheists* (2012), 4.
3. See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2000), 66–67.
4. Tyler J. VanderWeele, "Does Religious Participation Contribute to Human Flourishing?" *Big Questions Online*, Jan. 14, 2017, bigquestionsonline.com.
5. Stark, *How Religion Benefits Everyone*, 4.
6. Brooks, *Gross National Happiness*, 48.
7. See Andrew Sims, *Is Faith Delusion? Why Religion is Good For Your Health* (2009), 220.
8. See Stark, *How Religion Benefits Everyone*, 4, 106–107, 111.





## 이오나 위카이라

뉴질랜드 카이코헤



이오나는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힘과 평안을 얻는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회원인 것을 알고 있고, 주변 환경 때문에 나의 표준을 낮추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나와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후기 성도로서 좋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다.

모든 상황에서 나는 '구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 또는 '그분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실까?' 하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구주께서 하셨을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면, 내가 처한 힘들고 혼돈스러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더 분별력 있고, 차분하게 행동하게 된다.

### 추가 정보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ChurchofJesusChrist.org/go/7197](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go/7197)에서 찾아볼 수 있다. [ChurchofJesusChrist.org/go/18](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go/18)에 있는 '신앙의 초상' 시리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 성역의 원리

#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서로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다니는 와드나 지부를 둘러보면 남들과 쉽게 어울리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잘 어울리는 듯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이 외로움이나 소외감, 혹은 타인들 사이에서의 고립감을 느낀다고 한다.<sup>1</sup>

소속감은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므로 배척받는다라는 느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소외감이 들면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sup>2</sup>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마음이 더 편안한 곳을 찾게 된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구주처럼 사람들을 포용하라

구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포용하는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다. 주님은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지위나 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시면서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귀히 여기시어 그녀에게 당신의 신성을 간증하셨다.(요한복음 4장 참조)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사무엘상 16:7; 교리와 성약 38:16, 26 참조)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때로 자신이 곁도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해도 누가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적어도 그런 느낌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을 품고 성신의 인도를 받으며 그런 것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누가 언제 교회 모임과 활동에서 소외감을 느끼는지 알아볼 수 있다.

###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보이는 징후

- 팔짱을 끼고 있거나 눈을 내리깔고 있는 것과 같은 폐쇄적인 몸짓.
- 뒤편에 앉거나 혼자 앉음.

- 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참석함.
- 모임이나 활동 중에 일찍 자리를 떠남.
- 대화나 공과에 참여하지 않음.

이런 행동은 수줍음이나 불안, 또는 불편함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다. 교회에 갓 들어온 회원이거나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서 온 회원, 그리고 이혼이나 가족의 사망, 또는 선교 사업을 하다가 조기에 귀환하는 일처럼 최근에 삶에 충격적인 변화를 겪은 회원은 “이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환영받고 있고 이곳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역을 베풀었거나 받았던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 소속감과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 교회에서 항상 같은 사람들 옆에만 앉지 않는다.

- 사람들을 대화에 동참시킨다.

-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든,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미 계획 중인 활동에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사랑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칭찬한다.

-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나 해도 우정 증진을 중단하지 않는다.

- 그 사람이 어떤 특이한 점을 보이면 그것을 간과하거나 피하는 대신 관심을 보인다.

-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그것을 토대로 관계를 발전시킨다.

-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본다. (이 주제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성역은 다른 사람을 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리아호나』, 2019년 6월호, 8~11쪽을 참고한다.)



## 포용이 가져온 축복

크리스를 페흐터는 조국이 전쟁으로 무참히 파괴된 후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새로 간 곳의 언어도 잘 모르고 이웃에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그녀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인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와드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강한 억양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섞으려 하지 않거나 독신 여성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차이점에 개의치 않고 그녀를 자신들의 공동체로 환영해 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으로 대했고, 그녀는 곧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포용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자신이 사랑받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끼면서, 그녀는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온 생애를 바쳐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자신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때로 쉽지 않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우리는 다름이 주는 가치를 더 잘 알게 되고, 각 사람이 하는 특별한 공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차이를 통해 더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치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자비를 베푸는 환경을 조성하고 강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주

1. See Alexa Lardieri, “Study: Many Americans Report Feeling Lonely, Younger Generations More So,” U.S. News, May 1, 2018, usnews.com.
2. See Carly K. Peterson, Laura C. Gravens, and Eddie Harmon-Jones, “Asymmetric Frontal Cortical Activity and Negative Affective Responses to Ostracism,”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vol. 6, no. 3 (June 2011), 277–85.
3.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49쪽.



더 알아보기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면 『리아호나』, 2017년 9월호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무리 안으로 포용하기를 읽는다

실천에 옮기기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라고 가르쳤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8 쪽) 우리는 이 권고를 따름으로써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와드와 지부를 만들 수 있다. 다음은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제언이다.

- 교회 건물에 들어설 때, 그날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우정 증진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변을 둘러보며 관찰**할 수 있다.
- 때때로 우리는 혹 말실수를 할까 봐 서로 다른 점이 있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그러나 말을 걸지 않으면 그들은 고립감을 느끼며 왜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지 의아함을 느낀다. **곁에 앉아서 사랑을 표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걸어 본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본다.
-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개인과 가족이 복음대로 생활하며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를 말씀과 일요일 공과에서 전할 수 있다.**
- 교사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국적 및 가정 상황에 있는 회원을 수업에 참여**시킬 때, 반원들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경험을 해 온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교사는 복음대로 생활하며 경험한 일을 모두가 나누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의견을 나눌 때마다 교사는 **말해 준 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다.** 그렇게 하면 반원들은 자기 생각을 나누는 일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늘날의 십이사도

이 시대의 사도들이 그들이 받은 신성한 부름에 관한 생각을 나눈다.

세라 제인 위버, 제이슨 스웬슨

교회 소식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이후 189년 동안 102명의 남성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에 많은 변경 사항을 지시하셨지만, 사도들의 기본 의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템플 스퀘어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 세계에 구주에 대해 간증해야 하는 사도들의 영적인 책임, 선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연관성, “사도, 선전자, 계시자”를 향한 일반적인 몇몇 오해에 관해 이야기했다. 취재를 위해, 사도라는 신성한 부름에 대해 이야기해 줄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을 추천해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벨라드 회장은 서슴없이 “그럼요. 그분들 모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경청하고 이해함

사도들은 오늘날 엄청난 도전을 맞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불안, 가정의 붕괴, 집요한 소셜 미디어의 압력 및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성역을 베푼다. 회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섬기는 이들에게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만 한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영감과 계시를 받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בל라드 회장은 회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일하면서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 특별한 증인

사도의 부름에 관한 각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의 주된 책임은 어제와 오늘이 고 변함없이 정확하게 똑같다. 그들은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107:23)

בל라드 회장은 구주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시는 나아가 “가르치고, 간증하고,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라는 것이었음을 지적했다.(마태복음 28:19~20 참조)

지금도 사도들의 임무는 바뀌지 않았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행정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성역자들입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사도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증거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단위 조직의 성도들까지도 자신들이 주님의 선지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덕분에 세상이 좁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사도와 성도들의 만남도 항상 그렇기를 바랍니다.”



### 모든 스테이크를 방문함

쿠엔틴 엘 쿡 장로는 4년을 주기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이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 와드, 지방부, 지부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과 만나 선지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들을 훈련한다고 설명했다.

“지도자 대회를 통해 우리는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라는[교리와 성약 107:34] 교리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나 장로는 현지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체적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이 했던 심오하고 교훈적인 풍부한 경험 덕분에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게릿 더블유 공 장로는 “우리는 매번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만, 어디서나 회원들의 선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세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 내의 여러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로 정원회에서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는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웁니다.”

쿡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는 훌륭하고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역을 행할 기회를 받습니다. … 가장 깊은 감동은 성도들에게 성역을 베풀 때 얻습니다. 우리는 성신과 구주께서 주시는 인도로, 그리고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어떤 경험은 너무 신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 개인에게 성역을 행한다

총관리 역원이 된 지 어느덧 43년이 된 벨라드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40년째 봉사 중이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방문했으며, 수많은 회원과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성역을 행했다. 그가 전하는 말은 연차 대회와 영적 모임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다. 그의 책임은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 그는 성신의 인도를 통해 개개인과 소통하고



사도라는 단어는 “파송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초기 사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구주께서는 여전히 사도들을 “온 천하에” 보내신다.(마가복음 16:15~16)

사람에게 보이는 존경과 명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래스번드 장로는 사도로 성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대를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특별한 증인이 되는 위치에 서게 하노라.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말이 저의 성임 의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중요한 관계

사도들과 교회에 있는 7만 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들은 신성하고도 상호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는 사도라는 단어가 “파송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구주께서 옛 사도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마가복음 16:15~16)

벨라드 회장은 십이사도는 그 명령에 따라 선교 사업에 “의롭게 종사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옛날의 바울처럼 오늘날의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임한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한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십이사도는 자신들이 가진 열쇠를 행사하여 선교사들을 선교부에 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보냅니다.”

선교 사업을 인도하는 책임자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전임 선교사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살아 있는 사도들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선교사 집행 평의회에서 봉사하도록 지명하시어 권한을 부여하신다. 베드나 장로는 그러한 행정적 업무는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신권 열쇠를 갖고 있다. 베드나 장로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영적으로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라고 말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교회의 선교사 집행 평의회를

그들을 축복한다. 그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방법이 바로 구주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가끔 ‘모임에서 하셨던 장로님의 말씀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사연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신의 권능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십니다.”

베드나 장로는 사도의 성역을 “전 세계 교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감미롭고도 단순한 수많은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한 사람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을 만나며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안과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은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사도직에 부름을 받은 이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추가로 시간을 내어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저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회원들이 사도직에서 봉사하는



스페인을 방문한 벨라드 회장



영국을 방문한 홀런드 장로



러시아를 방문한 우흐트도르프 장로

이끌고 있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복음 토론에 늦지 않으려는 듯 자전거 페달을 맹렬히 밟으며 질주하는 두 선교사의 모습을 한 작은 청동 조각상이 놓여 있다. 그는 청동 조각을 유심히 볼 때마다 사도들과 선교사들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떠올린다.

“7만 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신성한 봉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부름장을 통해 구주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십이사도가 세상으로 내뻗은 팔입니다.”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선교사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찾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강화하도록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선교사와 사도, 이 두 그룹은 함께 일하며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로 파송된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우리는 전임 선교사를 우리의 동반자로 여깁니다.”라고 말한다.

## 오해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일부 사람들은 사도들이 교회를 기업처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의 직분은 “기업체의 간부가 되는 것과는 달라도 아주 다르다”라고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맡은 역할은 실제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를 특징 짓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는 파벌, 로비 활동, 권력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견 차이”는 있지만 “자존심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으신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에 대한

간증과 겸손함에서 비슷합니다. 그들은 직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중에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겸손이야말로 사도 직분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부름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표합니다. … 그것은 주님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 우리는 모두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다

구주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생긴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정원회의 일원들은 함께 모여 주님께 간구했다.

맛디아와 바사바 두 사람을 찾은 뒤, 사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여 주시기를 기도했고, “제비 [를] 뽑아 맛디아를 얻[어]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 멕시코를 방문한 크리스토퍼슨 장로





페루를 방문한 베드나 장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쿡 장로

(사도행전 1:23~26 참조)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은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고 렌런드 장로는 설명한다. “이 부름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얻는 부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바 대신 맛디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주와 그분의 부활을 만드는 바사바의 간증이 맛디아의 간증과 동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바사바가 자신의 부름이 무엇이든 그것을 완수했다면, 그가 받을 보상은 맛디아가 그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난 뒤 받을 보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벨라드 회장은 바사바의 간증이 맛디아의 간증과 동등했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회원은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사도처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는 “특권이며 축복이며, 영예”라고 말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브라질을 방문한 앤더슨 장로



### 성스러운 경험

앤더슨 장로는 “순회 고등평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신성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간증을 전하면, 그 간증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줍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성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사도로 갖 부름받았을 무렵 기대치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잊으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감동하든 실망하든 그 모든 것을 잊으라. 오로지 내가 너를 통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너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라.”

몇 년 전에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베네수엘라의 메리다를 방문했는데, 7살쯤 된 어린 꼬마가 창문으로 그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쳤다. “El Apostol, el Apostol!” (“사도님이에요, 사도님!”)

“매우 단순한 사례지만, 이 일은 심지어 어린이들조차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름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 부름이 무엇을 대표하며 부름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

사진: 후안 안토니오 로드리게스(스페인), 사이먼 존스(영국), 루이스 안토니오 이보요(아르헨티나), 크리스틴 알바(아르헨티나), 말레인 그리핀(멕시코), 알렉산드르 보르지시(브라질)

#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는가?

회원들은  
십이사도를  
지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각  
사도가 구주께 드린  
순종의 맹세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나타낸다.

세라 제인 위버, 제이슨 스웬슨  
교회 소식

**20** 17년 10월, 캘리포니아 소노마군과 그 인근 일대를 화마가 휩쓸고 간 비탄의 시기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는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후기 성도와 함께했다.

그는 성역의 임무를 수행했다. 래스벤드 장로 부부는 집회소와 새까맣게 탄 회원들의 집 근처에서 이재민이 된 그들을 위로했다.

그가 어디를 가든 회원들은 그와 악수를 하려고 나왔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다. 그들은 사도의 지원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회원들의 악수는 “장로님을 지지합니다”라는 공통된 마음의 표현이었다.

## 신앙의 행위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지지란 교회 회원과 교회 지도자를 이어 주는 신성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1,600만 명이 넘기에, 교회 회원 중에는 사도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악수를 하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모든 회원은 공식적인 거수 지지와 함께 일상의 행동에서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사도 및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게릿 더블유 공 장로는 “우리는 손을 들어 지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도 지지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약으로 묶여 있음을 압니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사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지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아레스 장로는 지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지하면 신앙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사도들을 지지함으로써 구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이 선지자와 계시자를 통해 전달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데 일조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저는 팔을 직각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과 그에 담긴 의미를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말했다. 사도들에게 교회 회원들의 지지는 생명을 주는 양식을 받는 것과 영적인 면에서 비슷하다고 그는 덧붙인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가치가 있으며, 모든 도움의 손길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부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도 교회에서 홀로 봉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래스번드 장로, 홍콩을 방문한 스티븐슨 장로, 브라질을 방문한 렌런드 장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공 장로, 브리검 영 대학교를 방문한 소아레스 장로



###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

사도들을 지지하는 후기의 관행은,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성도들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날부터 교회 지도자들의 부름에 동의하고 그들을 그 부름에 지지하도록 권유받았다.

1830년 4월 6일, 조셉 스미스와 새로 침례받은 그의 추종자들은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작은 통나무 집에 모였다.

조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회원들은 만장일치의 원칙을 행하기로 하고, 이 안전에 대해 손을 들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자신들의 교사이자 영적인 고문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서 회원의 자격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장일치의 원칙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며, 단합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우리 모두를 고양하는 행동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사도의 부름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고 테일 지 렌런드 장로는 말한다. 회원들은 십이사도를 지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각 사도가 구주께 드린 순종의 맹세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나타낸다.

쿠엔틴 엘 쿡 장로는 후기 성도들이 사도 한 명을 지지할 때 그것은 동시에 정원회 전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성스러운 지지가 사도들을 복돋우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고양해 준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축복을 주고 지침을 줍니다.”

이것은 샌타로자 화재로 심한 피해를 본 회원들이 래스번드 장로에게 계속해서 지지를 보냈던 것처럼 전 세계 회원들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 각각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이 고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지금도 계속되는 개척자들의 유산



**18** 47년 7월, 성도들이 박해에서 벗어나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 새 보금자리를 찾는 첫 번째 개척자 부대가 미 서부를 횡단하여 솔트레이크밸리로 들어섰다. 북미에 있는 수많은 회원들은 그 개척자들을 조상으로 두기에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전 세계 교회 회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개척자의 유산은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최근에 교회에 가입한 조상들이나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 또는 국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우리는 자신의 개척자 조상을 기리며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수 있다. 내 신앙의 유산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나의 개척자 조상들은 자신의 삶을 교회에 바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가? 그분들의 유산을 나는 어떻게 존중하고 나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척자 조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 신앙의 유산

“[개척자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삶이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함으로써, 충실한 우리의 개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간증의 불과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밝게 타오르게 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25쪽, 번역 수정.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물문경과 꽃바구니를 든 여인」,  
주발 아빌레스 사엔즈

「영원을 위해 현재를 창조하다」,  
실비아 휴게 드 세르빌

「겉지어다, 겉지어다, 네 아름다운  
웃을 입을지어다」,  
나탈리 앤 현세이커

「방문하다」, 추추

\*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 주님께  
거룩함, 에멀리 로스 글라우저  
파월

「가족과 경전을 읽으며」, 호세  
마누엘 발렌시아 아레야노

「길에 멈추어 서서」, 카르멜로 후안  
쿠유투파 칸나레스

「기쁨의 열매」, 나나코 하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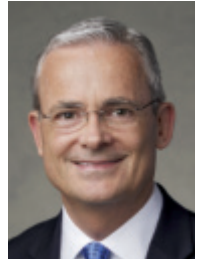
\* 표사가 된 것을 제외하고, 교회  
역사박물관 국제 미술 경연  
대회에 출품된 이들 작품과 다른  
출품작들을 [ChurchofJesusChrist.org/go/71921](http://ChurchofJesusChrist.org/go/71921)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 개척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GlobalHistories](http://history.ChurchofJesusChrist.org/GlobalHistories)에서 각국의 교회 역사와 개척자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패트릭 키아론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 더욱 거룩한 **봉사**의 방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살아 계신 그분을 더 자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대어섯 살 때쯤에 저는 저 자신에게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우리 대다수가 그렇듯이, 저는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했으며, 상처도 쉽게 받았습니다. 저는 방황했고, 남의 시선을 무척 의식했으며, 여러모로 미숙했습니다. 제가 영국의 한적한 해안 지방에 있는 기숙 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님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는데, 그것도 제게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만 놓고 보자면, 스네이프 교수가 있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가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해안 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좋지 않았지만, 어느 해 겨울에는 가공할 만한 폭풍우가 허리케인급 강풍을 몰고 와서 아일랜드해 전역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가옥 5천여 채가 침수되었고,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전기나 난방, 불빛이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는 우리를 내보내 청소 작업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를 가까이서 겪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이 온통 진흙과 흙탕물투성이였고, 집이 침수된 주민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청소 작업을 하러 가서 물에 잠긴 물건들을 위층으로 옮기고 영망이 된 카펫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우리 사이에 생겨난 동지애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뜻으로 힘을 합친 사람들은 서로 훌륭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런 수고를 하며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평소에 제



머릿속을 꽉 붙잡고 있던 불안한 감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이 저의 그 우울하고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대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완전히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발견은 제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좀 더 깊이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성역을 베푸라는 권유

2018년 4월 연차 대회 동안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구주께서 하시듯이 사랑으로 성역을 베푸라는 거듭된 당부를 들으면서 저는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횡수를 세어 평가받기 위해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그분이 계신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고 그 길 위에 머물도록 돕겠다는 더 높고 숭고한 목적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진정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들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면, 성역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쁨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구별 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역을 행하라는 그 당부를 귀담아듣는다면 우리 자신에 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신앙과 자신감이 커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공허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 성역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런 성역의 백미는 타인을 돕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 근심과 의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봉사할 때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겠지만, 그 즉시 우리는 훨씬 더 높고 더 아름다운 무언가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거의 깨닫지 못한 채로 서서히 영감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경전에 언급된 풍성한 삶은 타인을 위한 우리의 봉사를 늘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에 우리의 재능을 쏟을 때 이르는 영적인 절정의 상태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 의미 깊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지기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sup>2</sup>

### 주님의 요청

구주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 당신을 따르게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마태복음 4:20)

그러나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후, 그들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구주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한복음 21:6)

이것은 구주께서 어떤 권능도 잃지 않으셨다는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물가에서 함께 물고기를 먹을 때,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점점 더 근심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매번 대답하고 나면,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21:15~17 참조)

왜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어부 일을 그만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자 베드로는 슬퍼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이번에는 그 권유의 막중함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자들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베드로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의 양, 당신의 어린 양들을 먹이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직접적인 요청을 인식했습니다. 이 선임 사도는 요청받은 그 일에 여생을 바쳐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성역을 행함으로써 그에 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다**

오늘날 지상에는 또 다른 선임 사도가 계십니다.

넬슨 회장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권유합니다. 주변의 온갖 산만한 것들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권유에 **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뭔가를 행하고, 진정으로 변화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도록 촉구”하셨습니다.<sup>3</sup>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십시오.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받은 느낌을 따르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친절한 작은 행위를 하면 우리는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예기치 못한 친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꽃 한 송이, 쿠키 몇 개, 친절한 몇 마디 말도 좋습니다. 어쩌면 정원이나 마당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차를 닦고, 풀을 베고, 눈을 치우고, 아니면 그저 말을 들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위대하고 영웅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봉사 행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것이 내키지 않거나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그 작은 일이 가져오는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벨슨 회장은 봉사는 더 높고 거룩한 방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호응할 때, 그 봉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성취감과 해방감과 평온함을 가져다주는지, 또 우리가 타인의 생활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고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를 들어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자, 나는 다 했어. 봉사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자고. 나는 쉬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역에서 일시 정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역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활동과 휴가를 통해 쉬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분의 양을 먹이겠다는 우리의 성약과 책임은 잠시 멈추거나 쉬는 것이 아닙니다.

### 세계적인 교회의 성역

저는 성역을 실천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배부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7백만 시간 이상을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50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그리고 41개국의 4만 9천 명에게 휠체어를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40개국에서 안과 진료 및 안경을 제공하고 9만 7천 명의 간병인을 훈련시켰습니다. 38개국에서 3만 3천 명의 봉사자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헬핑핸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백만 시간 이상을 할애하여 봉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크고 작은 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합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JustServe 프로그램은 수많은 봉사 기회 목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미 35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각자의 지역 사회에서 수백만 시간 동안 봉사했습니다.<sup>5</sup>

이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특성이 되게 하십시오.

### 봉사의 세 가지 형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의 세 가지 형태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교회에서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명받거나 권유받는 형태의 봉사. 평가되지는 않지만 큰 가치를 지닌 이런 성역을 베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사람들에 관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습니다.

2.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봉사. 이것은 첫 번째 봉사 형태가 확장된 것으로, 우리가 자신을 잊고 타인에게 눈을 돌리기 위해 좀 더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이런 형태의 봉사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교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 임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이 동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정치 참여를 통한 봉사. 여러분의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봉사와, 개인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초점을 두고 정치에 참여하십시오. 지나치게 편향되고, 공격적이고, 지역 사회, 국가, 대륙 전반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이익 단체는 피하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와 그 외 지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찾고 있는 정치인들과 뜻을 같이하십시오. 여러분은 균형과 이성을 주장하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시민 참여에 여러분의 힘을 바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뉴스를 읽다 보면 세상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 크고 작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세상과 주변 사람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이웃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처럼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 문화와 종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께서 하시듯이 성역을 베푸라는 권유에 응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되어 한층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주의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 때 얻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염려와

불확실성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나 한 가지 목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일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전에도 받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손을 내밀고, 살피고, 복돋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느낀 권유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을 여러분이 보고 느낄 때, 여러분은 이를 일상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송고하고 훌륭한 노력은 빛과 희망,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나누며 그들이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성역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찾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삶을 사신 방식이자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무한한 속죄 은사를 통해 완전한 향유와 긍정적인 치유를 여러분과 계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살아 계신 그분을 더 자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8년 5월 6일 일요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말씀,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구별 짓는 특징"에서 발췌함.

### 주

1.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8쪽.
2. 스펜서 더블유 김볼, 「풍성한 삶」, 『성도의 빛』, 1979년 6월호, 2쪽.
3.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3쪽.
4. 진 비 영,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4쪽.
5. JustServe.org 참조.





## 제 1 장

# 부대를 모으라

편집자 주: 다음은 『성도들』 시리즈 중 제2권인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의 제1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지난해에 발간된 제1권 『진리의 표준』은 나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서부로 가기 위해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하는 첫 번째 후기 성도 무리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곧** 완공을 앞둔 나부 성전 1층 회당 내에 루시 맥 스미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은 숨을 죽였다.

때는 1845년 10월 8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을 대회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보급자리를 찾아 나부를 떠나 서부로 갈 계획이었다. 루시는 앞으로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노쇠한 칠순 노인의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힘찬 목소리로 간증했다.

“조셉은 열여덟 해 전 9월 22일 땅에서 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주님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은 지 열여덟 번째 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교한 아들 조셉이 떠오르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회당 안의 성도들은 주님의 천사가 쿠모라라고 하는 산에 묻힌 금판으로 조셉을 인도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조셉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 판들을 번역하고 그 기록을 몰몬경으로 펴냈다는 것도 모두 알았다. 그러나 이 회당의 성도 가운데 조셉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판을 맡기셨다고 조셉이 처음으로 말했던 그 순간을 루시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때 조셉은 겨우 스물한 살이었다.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빈손으로 돌아올까 근심하며 내내 가슴을 졸였던 그 아침. 그러나 조셉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루시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모두 잘되었어요.” 조셉은 루시에게 손수건으로 감싼 해석기를 건넸다. 그 해석기는 판을 번역할 때 쓰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셉이 무사히 그 기록을 얻었다는 증거였다.

그때만 해도 믿는 이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대부분도 스미스가의 가족들이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교회가 성도들을 집합시켜 온 일리노이주 나부에는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온 만천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었다.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은 1844년 6월에 폭도의 총구에 목숨을 잃었으므로, 나부에 있는 성도 중에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sup>2</sup> 그래서 루시는 그들에게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다. 성도들이 떠나기 전에 그녀는 조셉이 받았던 선지자 부름과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했던 역할에 대해 간증하고 싶었다.

자경단의 폭도들은 한 달이 넘도록 인근의 정착지를 확보하며 성도들의 집과 일터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많은 가족들은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부로 피신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폭도들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고 조직화되었으며, 얼마 안 가서 결국 성도들과 그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주 정부와 중앙 정부는 성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sup>3</sup>

나부가 폭도의 공격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봄까지 군을 떠난다는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언제 깨질지 모를 불안한 평화 협정을 맺었다.<sup>4</sup>

신성한 계시로 인도를 받은 브리검 영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일원들은 서쪽으로 1,6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로키산맥 너머의 미국 국경 외곽으로 성도들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가을 대회의 첫날,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의 감리 정원회 자격으로 성도들에게 그 결정을 공표했다.

팔리 프랫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와 평등권의 순수한 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sup>5</sup>

루시는 자신이 가겠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 여정을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한 곳에 집합하라는 명을 계시해 주셨으며, 십이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러나 연로한 루시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죽어서 이곳 나부에 묻히고 싶었다. 조셉과 하이럼,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조셉 스미스 일세를 포함하여 앞서 세상을 떠난 가족들 곁에 잠들고 싶었다.

더욱이, 아직 생존해 있는 가족들 대부분도 나부에 남을 것이었다. 살아 있는 유일한 아들인 윌리엄은 한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으나 이제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지도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부 이주도 거부했다. 소프로나리아와 캐더린, 루시 이렇게 그녀의 세 딸도 나부에 남기로 했고 머느리이자 선지자의 홀로된 아내 에머도 마찬가지였다.

루시는 회중을 향해 그들 앞에 놓인 길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짐마차 등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루시의 가족도 가난과 박해 속에서 물몬경을 출판하라는 주님의 명을 이뤄 내지 않았던가. 그녀는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 친절히 대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했다.

“브리검 형제님 말씀처럼 모두 정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당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쾌한 마음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루시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미주리, 일리노이에서 겪었던 끔찍한 박해, 그리고 성도들 앞에 놓인 난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님께서 브리검 형제님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세상에 가서도 여러분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sup>6</sup>

1846년 1월, 브리검 영은 나부를 벗어나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집합 장소를 건설할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을 찾고자 십이사도 정원회 및 오십인 평의회와 자주 만났다. 오십인 평의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현세적인 문제를 감독하는 조직이었다. 사도 중 한 사람인 히버 김볼은 하루속히 성도들로 소규모 부대를 꾸려 그들을 데리고 서부로 가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곳을 떠나 가족과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는 부름에 언제나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갖추 수 있는 부대



하나를 모으십시오.”

그러자 올슨 프랫 사도가 말했다. “선발대가 가서 올봄에 작물을 심으려면, 2월 첫날에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빨리 작물을 심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올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브리검 영은 그 생각이 탐탁지 않았다. 주님은 이미 성도들에게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근처에 정착하도록 지시하지 않으셨던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라는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하고 우묵한 그릇 형태의 그레이트베이슨이라는 분지 안에

있었다. 그 분지는 건조한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고 경작이 어려운 탓에, 서부로 이주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었다.

“생각 중인 그곳을 향해 협곡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어느 부족도 우리를 질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브리검의 판단이었다. 그는 그 지역에 이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성도들이 원주민들 가운데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sup>7</sup>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saints.ChurchofJesusChrist.org](http://sai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복음 자료실 또는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의 「리아호나」 7월호에서 이 기사를 디지털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ChurchofJesusChrist.org/kor](http://saints.ChurchofJesusChrist.org/kor)에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다.

#### 주

1.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Oct. 8, 1845;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Nov. 1, 1845, 6:1013-14. A complete report of Lucy's October 1845 conference sermon, with annotations, is available in Reeder and Holbrook, At the Pulpit, 21-26. **Topic:** Lucy Mack Smith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7]; 「성도들」, 제1권, 제4장, 44장; Black, "How Large Was the Population of Nauvoo?" 92-93. **Topic:** Deaths of Joseph and Hyrum Smith
3. Solomon Hancock and Alanson Ripley to Brigham Young, Sept. 11, 1845,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Mobbing Again in Hancock!" and "Proclamation," Nauvoo Neighbor, Sept. 10, 1845, [2]; Gates, Journal, volume 2, Sept. 13, 1845; Glines, Reminiscences and Diary, Sept. 12, 1845; "The Crisis," and "The War," Warsaw Signal, Sept. 17, 1845, [2]; "The Mormon War," American Penny Magazine, Oct. 11, 1845, 570-71; Jacob B. Backenstos to Brigham Young, Sept. 18, 1845,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Orson Spencer to Thomas Ford, Oct. 23, 1845; Thomas Ford to George Miller, Oct. 30, 1845, Brigham Young History Documents, CHL; see also Leonard, Nauvoo, 525-42.
4. To the Anti-Mormon Citizens of Hancock and Surrounding Counties (Warsaw, IL: Oct. 4, 1845), Chicago Historical Society, Collection of Manuscripts about Mormons, CHL; see also Leonard, Nauvoo, 536-42.
5. Council of Fifty, "Record," Sept. 9, 1845, in JSP, CFM:471-72;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Nov. 1, 1845, 6:1008-11.
6. Doctrine and Covenants 29:8 (Revelation, Sept. 1830-A, at [josephsmithpapers.org](http://josephsmithpapers.org)); Doctrine and Covenants 125:2 (Revelation, circa Early Mar. 1841, at [josephsmithpapers.org](http://josephsmithpapers.org));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Oct. 8, 1845;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Nov. 1, 1845, 6:1013-14.
7. Council of Fifty, "Record," Jan. 11, 1846, in JSP, CFM:514, 515, 518. **Topic:** Council of Fifty



브리검 영(위)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기 성도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1,6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로키산맥 너머로 가라는 주님의 명을 따랐다.

## 어린이와 한 약속

**몇**년 전, 나는 극도로 우울했다. 그나마 작은 열의라도 보인 것을 들라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녀의 아이가 유일했다. 우리는 주말에 산책을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즐거웠다. 그러나 그런 산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횡수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 내 친구와 그녀의 가족이 그리웠다. 나중에 나는 친구 가족이 몇 년 동안이나 다니지 않던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산책을 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 가족이 나를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이 가족을 다시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친구의 6살짜리 딸은 내가 자기들과 함께 교회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며, 서슴없이 내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이런! 교회 가는 일이 그 가족에게는 좋겠지만

**내** 휴대전화는 함께 교회에 가겠다는 꼬마 소녀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듯 끊임없이 울려 댔다.

나에게는 너무 지루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의 말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나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약속을 지킬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약속한 일요일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갔다. 내 휴대전화는 함께 교회에 가겠다는 꼬마 소녀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듯 끊임없이 울려 댔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아버지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교회에 가기로 했지만 사실은 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유비아, 지킬 마음이 없으면 아이와 절대 약속을 해선 안 돼.” 나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다른 것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다음 일요일에도, 그다음, 또 그다음 일요일에도 교회에 갔다. 그러다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성신이었다.

교회 회원들도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다. 어떠한 의심도 없이, 나는 교회가 알고 싶었다.

나는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간증을 얻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침례를 받고 싶은 열망도 커졌다. 얼마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복음의 축복을 만끽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나는 6살짜리 소녀와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 ■

유비아 파레데스 카브레라,  
멕시코 유카탄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친구이기도 한 동료가 “주님의 집이 바로 근처잖아. 가기 전에 나랑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했다.

## 성전 근처에서 드린 기도

**우** 리 아들 마르코가 세 살이었을 때, 마르코와 나는 식중독으로 크게 앓았다. 마르코는 상태가 정말 심각해서 의식을 잃기까지 했다. 아내 마리아벨라와 나는 마르코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마르코는 마치 죽은 것 같았다. 4시간쯤 지난 후에야 마르코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5년 동안 수시로 발작을 일으켰다. 우리는 매일 밤 마르코를 재우면서 또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수년 동안 우리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우리는 기도와 신앙과 금식, 그리고 신권 축복에 매달렸다.

마르코가 여섯 살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직장에 있는 내게 서둘러 병원으로 오라고 전화했다. 마르코는 심하게 발작을 한 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내가 전화했을 때, 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 인근에 있는 아르헨티나 선교사 훈련원 개조 공사 중이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친구이기도 한 동료가 “주님의 집이 바로 근처잖아. 가기 전에 나랑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했다. 우리는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해 운영이 중단된 주님의 집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나는 마르코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마르코 때문에 온갖 일을 겪었지만, 아내와 내가 그 아이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기도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마르코를 돌보았다고 말씀드렸다. 또, 하나님이 마르코를 본향으로 부르신다면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도 말씀드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혼수상태에 빠진 마르코가 살아날지, 그리고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도 다시 걷거나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매우 험겨웠던 두 시간이 지난 후, 마르코는 눈을 떴다. 아이는 지쳐 있었지만 괜찮았다. 그때부터 마르코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마침내는 약물치료를 끝내고 병원에서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

아내와 나는 이제 마르코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에, 또 우리가 그간 배운 것에 감사드리며 힘들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본다. 우리가 겪은 시련은 우리가 단합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게 해 주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보여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를 수없이 보며 경험했어요. 참고 인내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축복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

후안 벨트라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왜 하나님은 내게 경고해 주지 않으셨을까?

**남**편과 나는 첫아이가 네 살, 둘째가 두 살이었을 때 텍사스 주립 공과대학교의 학생 아파트에서 살았다. 텍사스 산악 지방은 난생 처음이었지만 나는 그곳을 정말 좋아했다! 텍사스 중부에는 봄이면 꽃이 만발한다. 정원과 숲, 빈 들판과 길가까지 어디를 둘러봐도 꽃이 지천으로 흐드러지게 핀다.

나는 거의 매일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곳을 거닐었고, 나는 아이들이 바라는 만큼 야생화를 꺾게 해 주었다. 우리의 산책은 대부분이 아름다운 화단을 가꾸는 집들이 있는 이웃 동네를 지나면서 끝을 맺었다.

어느 날, 우리는 모퉁이를 돌다가 화단 한 곳에 종이들이 잔뜩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람이 불면서 금세 뜰 전체로 종이들이 흩날려 갔다. 종이들이 더 날리기

전에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종이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잔뜩 집어서 기저귀 가방에 넣었다.

그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때 나는 내 손에 들려 있는 종이들의 정체가 다름 아닌 외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겁했고, 아이들에게 유모차에 그대로 있으라고 한 뒤 나머지 종이들도 부랴부랴 모았다.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화가 치밀었다. 나는 속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라고 내게 경고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때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열두어 명의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렸고, 그 아이들 모두 조금 전까지 외설물이 잔뜩 떨어져 있던 그 뜰을 지나갔다.

**바**람이 불면서 금세 뜰 전체로 종이들이 흩날려 갔다. 종이들이 더 날리기 전에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일을 보게 되었다. 왜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경고받지 않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유해한 사진을 보지 못하도록 종이를 모두 주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통학버스가 나중에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면? 나는 얼마나 오래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

그러한 경험을 한 이유를 깨닫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그날 이후로, 나는 그분의 지혜와 목적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다는 신뢰가 생겼다.

때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께서서는 더 큰 목적을 두고 계시며,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때로는 그것을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

라크 몽고메리, 미국 텍사스주



## 굳게 붙잡았을 때 느끼는 고통

더웠던 7월의 어느 날, 처남을 도와  
옹벽을 세울 때였다. 일을 하다 보니  
길을 막고 있는 흐드러진 뿔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업이  
되었다.

내 생각에 그건 그냥 식은 죽 먹기  
같았다.

나는 적당한 연장을 찾아 뿌리 주변을  
파서 작업을 할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톱을 움켜잡고,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뿌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작은 뿌리는  
쉽게 잘렸지만, 더 큰 뿌리를 자르려고  
톱을 대자마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특히 뿌리 하나가 애를  
먹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 뿌리를 잘라 내기로  
작정했다. 톱을 꽉 움켜쥐고 있는 내 머리  
위로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목에 땀이

줄줄 흘렀다. 톱의 진동에 온몸이 떨렸다.  
톱의 작동 레버를 움켜쥐고 있던 오른손이  
화끈거리면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통증을 무시한 채 계속 톱을 붙들었다.

결국 뿌리는 잘려 나갔다. 나는 톱을  
내려놓으며 달콤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 보니 손이 조금 찢어져  
있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톱을 붙잡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쇠막대를 굳게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쇠막대를  
굳게 잡는다고 고통의 순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톱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다쳤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쇠막대를 굳게 잡고 있는 동안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로 돌아오는  
여정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셨다. 지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는 동안  
그러한 것을 붙잡는다면 언젠가는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쇠막대를  
붙들었던 우리의 손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장애물이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으로 쇠막대를  
굳게 붙잡았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제프 보더스, 미국 워싱턴주



# 일 자리를 얻기 위한 여섯 단계

브루노 바셀 3세

우리는 직업이 필요하다. 직업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립할 수 없다. 다음은 일 자리를 얻는 6단계이다.

## 일

자리를 원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가? 혹은 지인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직업을 원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가 절실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원하는 일 자리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력서를 쓸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제 정보를 올릴까요?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합니까?’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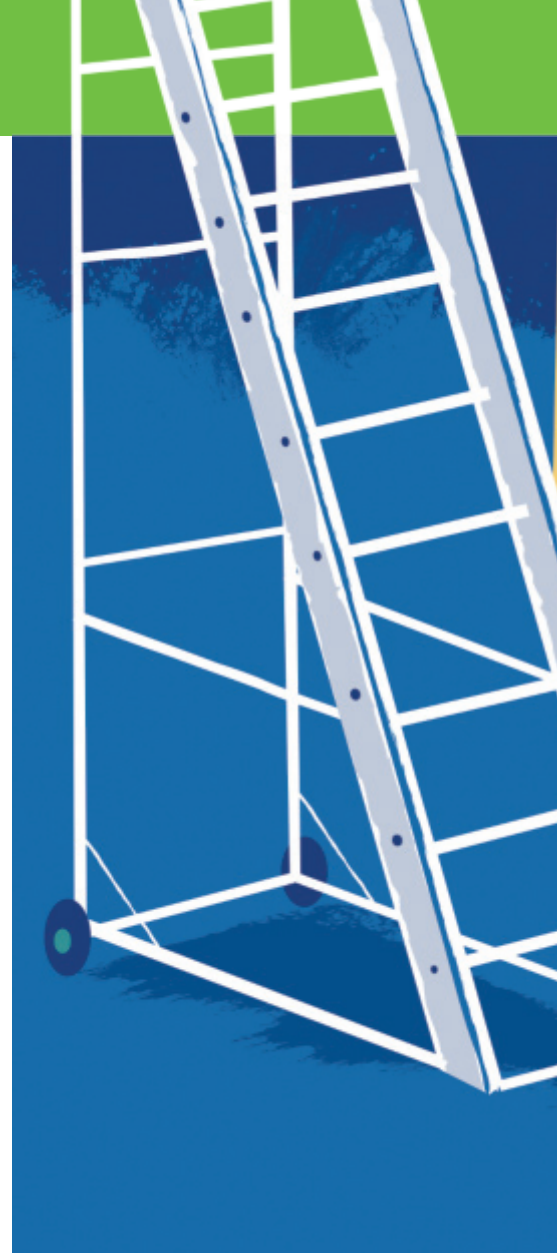
이 기사는 원하는 일 자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실행해야 할 6단계의 검증된 지침을 소개한다. 이 6단계는 필자가 진행했던 브리검 영 대학교 고용인 760명을 대상으로 한 고용 실태 설문 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 단계들은 고용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와 필자가 30년 넘게 20개국 이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제공했던 고용 및 채용에 관한 훈련 자료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와 아내는 최근에 장년 선교사로서 유럽 지역에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받아 봉사했는데,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여섯 단계의 지침은 거주 지역이나 보유 기술, 또는 원하는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원하는 일 자리를 얻는 과정은 며칠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과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6단계는 다음과 같은 3개 범주로

분류될 모든 수준의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처음으로 일 자리를 구하는 사람, (2) 현재 회사나 조직 내에서 다른 직무를 원하거나 승진을 원하는 사람, (3)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사람.

### 1단계. 현재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자신의 기술, 배경, 경력 또는 교육 수준에 맞고, 자신이 현재 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파악해야 한다. 결정 한 후에는 그 일과 관련된 직업을 종이에





여러 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음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

써 본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여러 직업명과 그 일에 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1단계에서부터 채용 공고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저 여러분이 자격이 되고 관심이 있는 직업 유형을 파악한다.

구직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두 가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자신은 자격 미달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이 찾는 일, 추구하는 일이 확실하지 못하면 어떤 일자리도 얻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저는 무슨 일이든지 좋습니다.”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나중에 만날 채용 담당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구직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일자리를 얻는 것에 집중한다.

## 2단계.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의 직무기술서를 찾아본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고용인 7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그리고 채용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들은 거의 대부분 채용할 일자리와 관련된 특정한 직무 기술, 경험, 경력, 또는 교육 수준을 갖춘 후보자만을 주목한다. 특히 중간 및 상위 직책에서 그렇다. 채용 담당자가 후보자들을 자세히 살필 때, 그들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떤 개요나 목록을 참고하는데, 그게 바로 직무기술서이다. 채용 담당자는 그렇게 한 다음, 그 직무기술서로 모든 후보자를



비교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의 직무기술서를 찾아야만 한다. 그것을 참고하면 자신이 이 직무에 적합한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채용 기업은 일반적으로 채용할 직책의 직무기술서를 기업의 웹 사이트, 신문 광고란 및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다. 직무를 잘 아는 현 근무자도 채용 공고가 난 직무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단계에서 여러분의 임무는 원하는 일자리의 직무기술서에 열거된 특정 조건들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얻은 주요 정보는 3~6

단계에서 사용될 것이다.

**3단계. 선택한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술, 경험, 경력, 교육 수준을 자신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찾은 해당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여러분이 그 일자리의 핵심 요건을 갖춘 사람임을 증명해 줄 여러분의 기술 및 그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파악한다.

자신이 보유한 직무 관련 기술 및 경력을 목록으로 만들 때, 2단계에서 찾은 해당 직무기술서의 주요 자격과 자신이 쌓은 경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1단계에서 선택한 직업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제 4~6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에서 목록화한 자신의 기술 및 경력이 2단계에서 찾은 직무기술서의 요건과 맞지 않는다면, 자신이 현재 보유한 기술 및 능력에 좀 더 어울리는 다른 일을 찾아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4단계. 1~2쪽 분량으로 맞춤형 이력서를 작성한다.**

이력서의 주요 목적은 채용 공고가 난 자리를 채우려 하는 채용 담당자 또는



이력서를 각 일자리에 맞춰 작성한다. 해당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기술 및 경력을 목록으로 만든다.

고용주와의 면접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이력서를 쓸 때는 고용인에게 자신의 업무 관련 기술, 경험, 경력 또는 교육 수준이 채용 기업의 직무기술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에 일치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 줌으로써 면접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력서는 각 기업의 채용 공고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한다. 자신의 근무 이력, 학교 정보, 현재 연락처 정보와 같이 모든 이력서에 포함되는 동일한 주요 정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세 정보는 여러분의 모든 이력서에 똑같이 기재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채용하는 자리에 대한 각 기업의 직무기술서는 다소, 또는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기술과 성취를 각 직무기술서와 연관시킬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이력서에 “연구”, “개발”, “생산”, “관리” 등과 같은 간략한 문구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영업과 마케팅에 모두 경험이 있고 2개의 다른 업체, 즉 한 곳은 영업에, 다른 한 곳은 마케팅에 지원하는 경우, 2개의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하나는 영업 활동과 그 경력에, 다른 하나는 마케팅 활동과 그 경력에 더 치중해서 작성해야 한다. (아직 사회 경력이 부족한 경우, [ChurchofJesusChrist.org/go/71939](http://ChurchofJesusChrist.org/go/71939)에서 교회 봉사 경험을 이력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5단계. 현재 채용 공고가 나온 기업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본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때에도 채용이 필요한 곳은 언제나 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퇴직, 이직, 승진, 강등 또는 이사를 하고, 사업체가 계속 성장하여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 곳들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채용이, 때로는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계속 찾는다.

채용 기업의 웹 사이트, 구직 사이트, 신문 광고란 및 여러 자료에서 여러분이

채용 면접 때 받을 수도 있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준비하고 연습한다.

원하는 직업에 대한 채용공고를 찾아본다. 또한, 채용 중인 일자리를 찾는 최고의 방법은 인적 네트워크이다. 이웃이나 워드 회원 등 매일 많은 사람과 연락하며 자신이 찾고 있는 특정 직업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그런 직장을 알고 있는지, 또는 지인 중에 그런 일자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매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연락처를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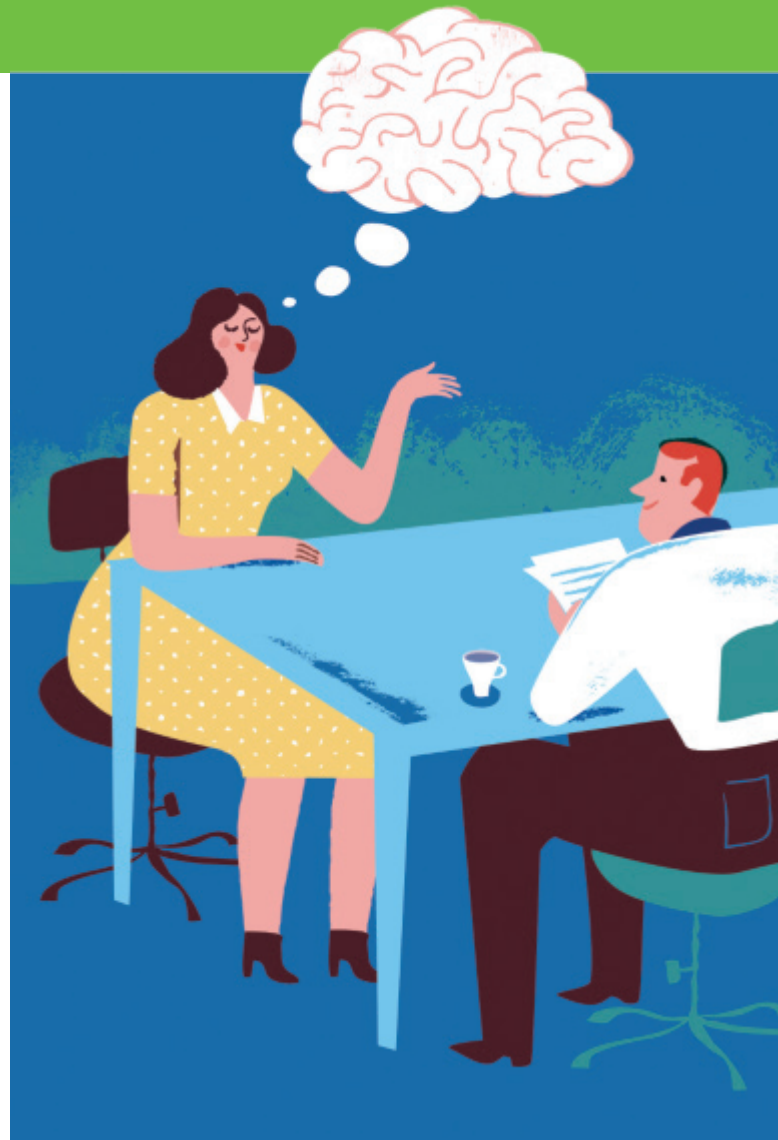
#### 6단계. 채용 기업에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을 익힌다.

채용 기업에 세심히 준비한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준비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 구직자가 곧바로 면접 연락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후보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적절한 준비를 하기도 전에 면접을 보게 되고, 결국은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구직에 실패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 면접관에게 가서 면접을 다시 보게 해 달라고, 이제는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도 없다.

면접을 볼 때 모든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는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된다. 항상 정직해야 하지만, 면접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는 법과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법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 이전 직장에 있었던 문제 중에 이제는 다르게 처리할 것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 어떤 급여 조건을 원하십니까?
- 5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후보자로서 받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답변으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자신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배경, 기술, 경력을 갖추었음을 드러내는 답변을 1~2분 길이로 짧게 하는 데 집중한다. 첫 면접 전에 업체를 조사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만한 답변을 준비한다.



대부분의 면접 말미에는 채용 기업에 몇 가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질문은 해당 채용 공고에 관해 묻는 것이다. “이 직무를 통해 달성해야 하거나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 업체에서 2차 면접을 보게 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 업무 문화, 급여 (질문받지 않은 경우), 근무 시간 및 복리후생에 대한 질문은 다음 면접을 위해 남겨둘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6단계를 밟았다. 우리는 직업이 필요하다. 직업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원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그런 사람을 아는 경우, 이 강력하고 검증된 구직 방안을 활용하거나 알려 준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회 자료

와드 또는 스테이크의 “더 좋은 일자리 찾기” 자립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와드 또는 지부에 자립 전문가나 취업 전문가가 있는지 문의한다.

[ChurchofJesusChrist.org/go/719](http://ChurchofJesusChrist.org/go/719)에서 면접, 인적 관계, 이력서 작성 등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본다.



###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

“근심에는 해결책을, 슬픔에는 치료제를 주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은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서 훌륭한 평판을 쌓도록 합시다. 매일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에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56쪽.



##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 몇 몇

달 전에 나는 꿈을 꾸었다. 평소처럼 별로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 없이 교회에서 맨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나의 시각이 바뀌었다. 회중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는 다른 조기 귀환 선교사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나는 내 경험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고, 도로 위 과속 방지턱 같은 이 장애물을 넘어 계속해서 성약의 길을 걷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기간이 얼마였든지에 상관없이 선교사로서 바친 우리의 의로운 봉사를 하나님 아버지는 높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브리서 6:10) 내 기사에서 나는 어렵고도 예기치 않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경전 이야기와 다른 조기 귀환 선교사들의 경험을 다루었다.(47쪽 참조) 또한 나는 합당성 문제로 조기 귀환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물론경 속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준 앨릭스의 기사가 참 좋았다.(44쪽 참조)

온라인 전용 기사에서는 불안, 두려움, 절망과 같은 감정을 개인적이고 성스러운 기쁨으로 탈바꿈한 에밀리의 경험을 읽어 볼 수 있다. 전문 상담사인 케빈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기 귀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귀환한 이유보다 귀환을 해서 무엇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구주의 도움을 통해 치유되고 발전하며, 영원을 향한 이 여정에서 더 많은 기쁨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다.

진실한,  
리아호나 피케



최고의 조언 ...

청년 성인들이 조기 귀환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았던 가장 훌륭한 조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제가 받은 조언은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였어요. 미래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너새니얼 파크,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조기 귀환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엘레나 킹즐리, 미국 유타주**

“상황이 어려워든 간에, 스스로 새로운 일과를 만들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로잘린 라우터, 네덜란드**

“선교 사업의 끝은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임무를 찾으세요!”

—**로베르토 알폰소 마르티네스 4세, 미국 유타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신앙을 지키세요!”

—**리베카 스톡턴, 미국 애리조나주**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2019년 7월 31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ChurchofJesusChrist.org](http://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성인 저자들 소개

**엘릭스 휴기**는 미국 오리건주 출신이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일은 청년 성인 관련 문학 공부, 재미있는 단편 및 장편 소설 창작, 그리고 우유를 마시는 것이다.



**리아호나 피케**는 프랑스 남부 출신이다. 그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의학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즐기며, 여성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현재 조기 귀환 선교사에 관련된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있다.



**에밀리 워너**는 미국 아이다호주 북부에서 성장했다. 지금도 그녀는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 에밀리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했고, 등산과 사진 촬영, 그리고 남편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 호 이야기

**44** 조기에 귀환을 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릭스 휴기

**47** 조기 귀환 선교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피케

\* 이 기사에 관한 추가 자료가 온라인 버전에 실려 있다.



온라인 전용

조기 귀환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케빈 테리엇

조기 귀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에밀리 워너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https://facebook.com/liahona)

선교 사업에서 조기에  
귀환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 조기에 귀환을 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앨릭스 휴기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선교 사업에서 조기에 귀환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임지에 나간 청년 성인들은 신체적인 부상, 정신 건강 문제, 민간 비상사태, 합당성 문제, 다른 사람과의 심각한 갈등 또는 선교사 규칙 위반 등으로 예정된 해임 날짜보다 빨리 귀환할 수 있다.

## 물론경에 나오는 선교사

앨마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용한 예를 제시한다. 니파이인 선지자 앨마는 간악한 조렘인들에게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끌었다. 믿을 만한 사람들 다수가 그와 동행했다. 이들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아들 코리엔톤은 “직무를 저버리고, 창녀 이사벨을 따라, 레이맨인들의 경계 가운데 있는 시론 땅으로 건너갔다.”(앨마서 39:3) 그 결과로 앨마는 코리엔톤을 날카롭게 책망했으며, 회개하도록 그를 일깨우며 이렇게 말했다. “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네 범죄를 되새기며, 네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앨마서 39:7)

코리엔톤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조렘인들에게로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며 “진리와 진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앨마서 42:31)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앨마가 아들들과 이야기한 후에 앨마의 “아들들이 [시블론과 코리엔톤 모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다고 말한다. (앨마서 43:1)

## 잠재력을 가지고 돌아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었을지라도 조기에 귀환한 선교사는 여전히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코리엔톤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여전히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갔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로 귀환한 선교사일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이 파괴되었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코리엔톤은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 스스로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는 조기 귀환한 선교사의 영적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배운다. 코리엔톤의 아버지이자 신권 지도자였던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충고하면서 그를 날카롭게 꾸짖었지만, 그에게 여전히 영적인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코리엔톤의 경우와 같이, 선교 사업 중에 불순종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겠지만, 모든 규율에는 사랑, 용서, 자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121:41~44 참조)

### 치유를 위해 돌아옴

이와 동일한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날 조기에 귀환한 선교사들에게도 되풀이된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일찍 돌아온 마셜은 종종 자신이 선교사로서 완전하게 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건강상의 장애와 개인적인 부족함을 안타까워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봉사가 단연코 가치 있었다고 느낀다.

마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선교사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선교사가 아니었던 그 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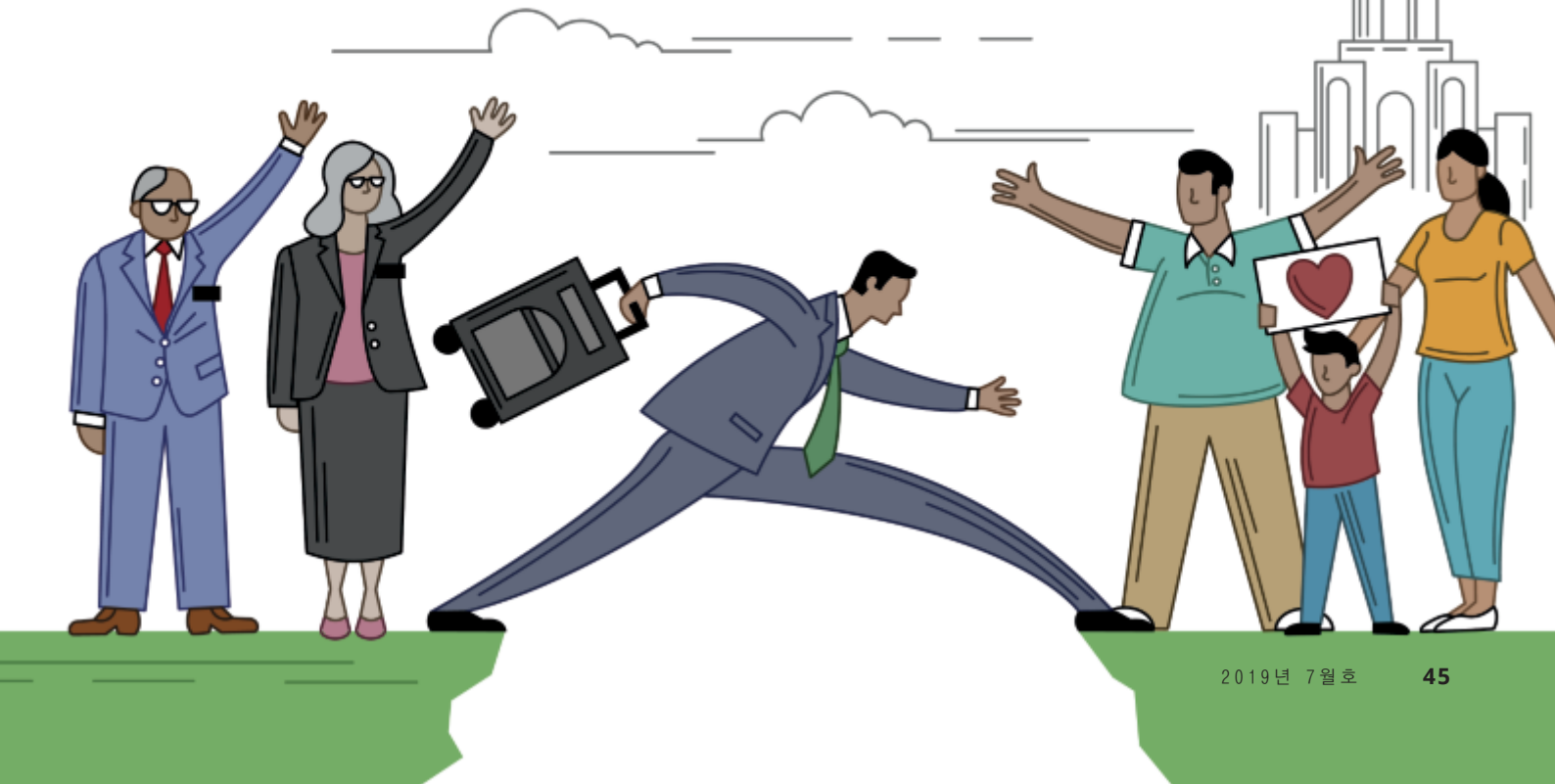
마셜은 선교사들이 행하는 봉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선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심지어 그 봉사가 어떤 선택이나 상황에 의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그 봉사에 대해 기뻐하시며 그 사실을 선교사들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는 믿는다.

마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으로써 병에 대처하고 병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 회개하기 위해 돌아옴

미국 콜로라도에서 봉사한 또 다른 선교사는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로 선교부에서 집으로 귀환했다가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그리고 후에 재침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집에 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렸으며, 제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와서 종종 가장 어려웠던 일은 계속 교회에 나가고, 경전을 읽고, 기도할 동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일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과 가족의 지지에서, 그리고 회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목표를 세우고, 감독님과 만나고, 합당해졌을 때 성전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감독님을 만날 수 없었거나 목표를 성취할 수 없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대적은 언제나 옆에서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고, 구주의 속죄와 회개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는 집으로 보내지기 전 몇 달간의 선교사 경험을 언급하며 말을 계속했다. “저의 선교 사업을 되돌아보면, 저는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제 경험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인해 삶이 바뀌는 분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실수를 했지만, 제가 회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만큼 저의 간증은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조기에 귀환한 이들이 다음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집에 오는 것은 회개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일단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은 없습니다.”

## 조기 귀환한 이들을 사랑함

조기에 귀환한 이 두 선교사는 조기에 귀환한 선교사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셜은 말한다. “그러나 조금 우울할 수도 있으니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언제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저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콜로라도에서 봉사했던 선교사는 덧붙인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조기 귀환 선교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들이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신앙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코리엔톤과 같이, 조기에 귀환한 선교사들은 지금의 연약한 상태에서 일어나 주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하나님의 계획에서 희망을 찾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조기에 귀환한 선교사에게 몇 가지 위안의 말을 들려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봉사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십시오. … 여러분이 한 봉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선교사 명찰을 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간증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 여러분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시는 되새기지 마십시오.”<sup>1</sup>

죄의 결과로 조기 귀환한 이들은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조이 디 존스 자매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죄를 범할 때 우리의 합당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sup>2</sup>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내적인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녀는 역설한다.

물론경, 조기에 귀환했던 선교사들,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동일하다. 절대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보다 위대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선교사들이 조기 귀환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그들은 치유받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조기에 귀환한 선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 글쓰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복음 자료실 앱에 있는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에서 예비 선교사와 조기 귀환 선교사를 위한 자원 목록을 찾을 수 있다.

## 주

1. Jeffrey R. Holland, “Elder Holland’s Counsel for Early Returned Missionaries” (video), [churchofjesuschrist.org/media-library](http://churchofjesuschrist.org/media-library).
2. 조이 디 존스,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4쪽.

청년 성인들이 조기에 귀환한 후에 의미와 평안을 어떻게 찾았는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들려준다.

# 조기 귀환 선교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피케

“**다** 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라”라는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전임 선교사 군대는 많은 사람에게

“큰 희망과 많은 기쁨”을(앨마서 56:17) 가져다준다. 그러한 선교사들은 몰몬경에 나오는 힐라만의 젊은 용사들처럼 매일 “기적적인 힘과 것처럼 큰 능력으로 싸운다.”(앨마서 56:56)

그러나 2,060명의 젊은 용사 중에도 “피를 잃음으로 인하여 기진한 자”가 200명이나 있었다.(앨마서 57:25) 그 사실이 그들의 용기를 꺾었을까? 아니면 약하게 했을까? 덜 용맹하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덜 합당하게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이유로 조기에 귀환한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용기가 없거나 약하거나 덜 용맹하거나 덜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시련을 겪는 내내 보인 여러분의 인내는 정말 대단하며 당연히 그럴 것이다. 여러분은 살아남았다. 아마도 크게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이제는 여러분의 상처가 신체적인지, 정신적인지 또는 영적인지에 상관없이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앨마서 57:28 참조) 합당성과 관련된 이유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집에 돌아와 적응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을 치유할 시간을 가지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엘마서 57:27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혹은 딸] 가운데 어떠한 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어”—예를 들면, 선교 사업—“그 아들[혹은 딸]이 그 일을 수행하려고 가서 자기들의 능력을 다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하여 부지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들의 원수들이”—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혹은 다른 부상들—“그들을 공격하여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는, 보라, ... [그들]의 손에 더 이상 그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현물을 받음이 내게 마땅하다.”

(교리와 성약 124:49)

여러분이 전투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혹은 재발한 상처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합당하게 봉사했거나 또는 완전히 회개하는 한, 여러분의 공헌은 주님께 필요한 것이었으며 주님은 이를 받아들이셨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혼자 아니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치유를 얻을 수 있다.

## 구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선** 교부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나는 귀환할 때의 내 모습이 어떨지 상상했다. 환호성이 터지고,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포옹해 줄 것이었다. 나는 내가 명예롭게 귀환한 선교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1개월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나는 매 순간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응원해 주고 포옹해 주었지만,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혼자 있었다.

구주는 나의 어두운 나날을 지켜보고 계셨다. 현실을 회피하려고 울면서 잠든 3주 동안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힘을 필요로 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내 주위의 어느 누구도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선교 사업이나 조기 귀환을 견뎌 내지 못했을 것이다.

알리 보야자,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 왜라고 물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조** 기 귀환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상담사가 그것을 제안하자마자 나는 부끄러움, 안도감, 죄책감, 화평, 슬픔이 동시에 뒤엉킨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집에서 첫 주를 버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일주일도 더 버텼다. 그리고 또 한 주를 더 버텼다. 마침내 예전의 나로 되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셨다. 아버지는 진정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셨다. 아버지는 항상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캐묻기보다는, 그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

몇 달 후에 아버지가 암벽 등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던 일 덕분에 구원의 계획에 대한 나의 간증은 굳건해졌다. 아직도 나는 내가 왜 집에 와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놓쳐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리스틴 와타베, 미국 오하이오주



사진: GETTY IMAGES

##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나**는 모든 면에서 선교 사업을 잘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놀라운 경험도 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많은 금식과 기도 끝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경전 읽기도 기도도 자주 하지 않았다. 내가 선교사로 남기 위해 해야 일을 다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겼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분을 신뢰했고, 다시 한번 놀라운 경험을 했던 선교부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일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비록 24개월 동안 봉사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선교사로서 명예롭게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님께 봉사했던 그 시간이 나와 내가 도왔던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구주의 무한한 속죄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필리페 호프만, 브라질 고이아스

## 선으로 자신을 두르십시오

**내**가 조기 귀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을 마주할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러나 비록 내 인생에서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나는 회개의 과정을 밟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복음의 가르침과 계명에 어긋나는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나의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 주고 싶지 않아 감독님과 회개하는 과정을 미리 밟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명예롭고 충실하게 봉사하려면 집으로 돌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교회 모임, 봉사 활동, 성전처럼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활동에 참석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여 주었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모두의 도움으로 나는 플로리다주로 다시 돌아가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내 소망은 사람들이 조기 귀환하였든지, 아니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케이전 스튜어트, 미국 유타주

여러분이 이 사업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받은 선교사 부름장에 있는 약속, 곧 “주님은 [여러분]의 의롭고 선한 마음가짐과 행실, 그리고 준비에 대해 보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의 상처는 관심과 보살핌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프랑스 출신의 저자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복음 자료실 앱에 있는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에서 더 많은 조기 귀환 선교사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주

1. 「선교사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18), ChurchofJesusChrist.org/manual/missionary.

## 나는 배구와 달리기를 하며, 책을 많이 읽는다.

하루 동안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도 해변에 갈 것이다.

나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지만,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 나부로 이사했다. 위탁 가정에 오기 전의 삶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은 기억한다. 위탁 돌봄을 받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꼈다. 나는 복음이 있어 기쁘다. 내 친구들 중 몇 명은 우리가 지닌 표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무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계명을 지키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가족을 찾은 건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엄마는 내가 다니던 유치원에 임시 교사로 도우러 오셨었다. 엄마는 나와 놀아 주신 뒤, 선생님 중 한 분에게 내가 너무 귀엽다면서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입양될 수 있는 아이이니까, 혹시 될지도 몰라요!”라고 답하셨다. 엄마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는 나와 남동생 두 명을 입양하셨다. 가족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는 나에게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었다고, 그래서 가족이 있다는 것이 더욱 특별하다.

**릴리 에스**, 14세, 미국 일리노이주



이번 호 이야기



- 52 공부하기, 읽기, 복습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기.  
마리오 디아스 알론소
- 54 일터에서 보낸 최고의 날!  
조니 엘 코흐 장로
- 56 신약전서에서 얻은 교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여러분도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헤더 화이트 클래리지
- 58 “이곳을 떠나야 한다”  
세르히오 리켈메 세구라
- 61 포스터  
신앙은 한 번에 조금씩  
생긴다
- 62 사랑하는 오빠가 보낸 편지  
메릴리 에스 비 애버렛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물문경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공부하기, 읽기, 복습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기.



마리오 디아스 알론소

**칠**레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대학 배치 고사를 치러야 한다. 나는 내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한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학비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대학 배치 고사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 그 점수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것이였다.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관한 내 목표는 분명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다. 나는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나는 교재를 공부하고, 읽고, 복습했지만, 모의고사를 몇 차례 치러도 필요한 점수는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예지와 이해력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나는 이를 위해 일 년 동안 기도했다. 나는 학교에서 특별 준비반에 들어갔고, 학원의 시험 준비 집중 공략반에도 등록했다.

나는 매일 경전을 공부했으며, 세미나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내가 가진 아론 신권 임무도 모두 이행했으며,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든 간에 일요일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나는



장학금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었다.



## 여러분이 교육에서 성공을 거두도록 도움

교회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받는 훈련 또는 교육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 어떤 국가에서는 직업 훈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구 교육 기금을 운영한다. 이에 대해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문의하거나 [pef.lds.org](http://pef.lds.org)를 방문한다.
- BYU-PathwayWorldwide는 온라인 대학 교육을 적절한 비용에 제공한다. 학생들은 대학 공부를 시작하거나 마치려는 사람들을 위한 일 년짜리 온라인 프로그램인 PathwayConnect부터 시작한다. PathwayConnect를 수료한 학생들은 즉시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일 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계속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일한, 저렴한 수업료로 제공된다. [byupathway.lds.org](http://byupathway.lds.org)를 방문한다.\*
- 영어를 배워 두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많아진다. EnglishConnect는 복음에 중점을 둔 환경에서 개인이 더욱 영적 및 현재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제공하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englishconnect.ChurchofJesusChrist.org](http://englishconnect.ChurchofJesusChrist.org)를 방문한다.
- 교육과 관련해 교회에서 마련한 자립 과정을 “더 나은 직업을 위한 교육”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12주 과정이며, 여러분의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에서 개설한다. 교재는 복음 자료실의 자립 카테고리 또는 [ChurchofJesusChrist.org/go/71857](http://ChurchofJesusChrist.org/go/71857)에서 찾을 수 있다.

\* 아직 한국에서는 시행되지 않음



### 교육은 여러분이 봉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가 권고하는 바는 …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주어진 기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하고, 잘 준비하십시오.”

President Russell M. Nelson, “Education: A Religious Responsibility” (Brigham Young University - Idaho devotional, Jan. 26, 2010).

일요일이 주님의 날임을 알았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날을 지키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특히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잃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서는 필요한 점수가 통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아버지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 나는

이렇게 영적인 준비와 다른 준비를 다 한 뒤에 시험을 치렀다. 나는 결국 필요한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표치를 넘어서서 수학 과목에서는 최상위 백분율에 들었다. 나는 내게 필요했던 장학금과 혜택을 받았으며, 내가 선택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영적인 책임을 먼저

이행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배웠다. 삶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풀리지는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나는 오직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안다. ■

글쓴이는 칠레 카우틴에 산다.



조니 엘 코흐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일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를 배우면, 훌륭한  
기쁨의 근원도 발견하게  
됩니다.

# 일터에서

**여**러 해 전에,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처칠 대학 강당에서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연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의 전 세계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로부터 그해 우리 팀이 올린 우수한  
실적에 대해 대표로 수상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 8만 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간부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우리 팀이 이룬 성취에 대해  
극찬하는 동안, 나는 '오늘이 분명 일터에서 보낸  
최고의 날이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 함께 나누던 빵

그러나 바로 그때, 40년 가까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제가 처음으로 일을 했던 날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빵을  
구워 우리가 사는 브라질 남부 도시 내의 여러  
소규모 상점에 납품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께 저를 일터에 같이 데려가 달라고  
계속 졸라 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마침내  
승낙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자그마한 흰색  
앞치마와 제빵사 모자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와 저는  
제과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료를 배합하여  
반죽을 개고는,  
손으로 덩어리  
모양을 만들어서  
벽돌로 된 오븐에  
넣었습니다. 빵이 다  
구워지면 기다란 나무  
주걱으로 조심스레 빵을  
꺼냈습니다. 잠시 기다린  
다음에, 우리는 아직 따끈한  
빵 한 덩어리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니, 케임브리지에서  
상을 받은 날은 제가 일터에서 보낸 두  
번째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최고의 날은 관중이나 기립 박수도  
없이, 자그마한 제과점이라는 훨씬 초라한  
환경에서 보낸 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아버지 단둘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일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가 맨 처음부터 시작해  
손수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체와 영혼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흰색 앞치마와  
제빵사 모자, 그리고 아버지와 제가 함께 만들었던  
그 빵을 저는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 보낸 최고의 날!

## 일하는 것은 축복이다

주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창세기 3:19), 마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자립하고 자신의 소망과 필요 사항을 만족시킬 때 오는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직업을 단지 우리 자신과 가족을 현세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수단이나, 맛있는 직책을 맡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일함으로써 과제를 완수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혁신하거나 개선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가운데 크나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복음에 중심을 둔 삶은 언제나 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납된 삶이란 때로는 되풀이되고, 때로는 하찮으며, 때로는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늘 무언가를 향상하고, 정돈하고, 지탱하며, 들어올리고, 보살피며, 영원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sup>1</sup>

아마도 여러분은 어릴 적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라는 질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십 대가 되면, 그 질문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할 거니?”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열정, 명예, 그리고 목적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어떤 형태의 일을 하게 되든지, 열정과 명예와 목적을 지니고 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야 하며,

언제든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현세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할 기회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일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배울 때, 여러분은 자립이 주는 행복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관중에게 받은 기립 박수와 격려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지만, 체계는 아버지와 함께 체과점에서 일했던 날의 기억과, 오븐에서 금방 꺼냈던 그 빵 냄새가 더욱 소중한입니다. ■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7쪽.

신약전서에서 얻은 교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여러분도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방법

- “믿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앨마서 32:27)<sup>4</sup>
- 경전에서 구주에 대한 성구를 공부한다.
- 성신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임을 확인해 주도록 기도로 간구한다.
-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부분을 표시한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친구가 막 초코바 포장을 뜯으려 하는데, 누군가 다가와서는 친구가 자신의 초코바를 훔쳤다면 친구에게 그 초코바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여러분은 친구가 초코바를 살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을 무릅쓰고 친구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한다.

### 특별한 증인

이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증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여러분은 친구의 선한 성품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증인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셨다. 사도는 가르치고, 간증하고, 봉사하는 “특정한 권세와 책임을 지고 파견된 사람”이며,<sup>1</sup>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한다.(교리와 성약 107:23)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들은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다.(사도행전 1:8 참조) 신약전서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한 수많은 예를 읽을 수 있다.(사도행전 2:36; 5:27~32; 10:36~44 참조) 오늘날의 사도들은 이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부름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어느 연차 대회든지 그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성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신약전서에 등장하는 사도 중 몇 명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다.(사도행전 1:9~11 참조) 현대의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보았을 수는 있으나<sup>2</sup>,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분을 직접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이같이 말씀했다. “[성신]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사람이 진실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sup>3</sup> 이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았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분이 구주이심을 아는 것은 성신이 그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 여러분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보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성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46:13 참조) 그것은 사도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지는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 동안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다음의 명을 따를 수 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

### 주

1. 고든 비 헝클리,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77쪽.
2. 보이드 케이 페커, 「증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7쪽 참조; 또한 로렌조 스노우, 「구주의 방문」, 『리아호나』, 2015년 9월호, 80쪽 참조.
3. 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3:31.
4. 또한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3~95쪽 참조.



# “이곳을 떠나야 한다”

가족과 함께 칠레 북부로 이사하는  
것은 두려웠으나, 그 사막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다.



## 세르히오 리켈메 세구라

# 몸

문경에서 니파이가 늘 시현을 보는 아버지를 지지하는 내용을 읽었을 때, 나는 대부분의 교회 청소년들도 아마 니파이처럼 행동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이 사막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자, 나는 내가 레이먼과 레뮤엘에 더 가깝다고 느꼈다. 나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처럼, 나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니파이전서 1:1) 두 분 모두 십 대 시절에 교회에 들어오셨으며, 어머니는 아버지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셨다. 부모님은 활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회원이셨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가 살던 지역인 칠레 콘셉시온의 경제 상황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하셨다. 마침내,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칠레의 광산 지역인 칼라마라는 북부 도시로 가셨다. 건축 기술자인 아버지는 그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으셨다. 그러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셔야 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집까지 32시간이 걸리는 버스 여행의 경비를 부담하실 수 있을 때에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를 일 년에 두세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몇 년이 흐르자, 어머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 부모님은 나머지

가족이 북부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셨다.

##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해야 한다

남동생은 이사를 하는 데 전혀 꺼릴 것이 없었다. 대학에 다니고 있던 누나도 내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학업을 희생할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해야 해.”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사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했다. 나 역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변화를 겪고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고 싶지는 않았다. 이곳엔 친구들도 있었고, 주변 환경에도 익숙했고, 생활도 만족스러웠으며, 콘셉시온에 있는 대학에도 가고 싶었다. 나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급기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혼자 계시잖니.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단다. 네가 이해해 주면 좋으련만, 넌 네 생각만 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뒤 어머니는 “그곳에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라며 나를 안심시키셨다. 마음으로는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머리로선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당시에 나에게 강한 간증은 없었지만, 나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도해 보기로 했다. 분명한 응답이



종교 교육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세르히오.

왔다.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단다.” 슬펐지만, 나는 부모님께 함께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 나무는 어디 있지?

콘셉시온은 나무가 울창한 녹지대이다. 그곳은 연 평균 강우량이 1,270mm에 달한다. 우리가 이사를 가기로 한 곳은 칼라마 근교의 안토파가스타라는 도시로, 연 평균 강우량이 고작 2.5mm이다. 이사가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이사하는 여행길이였다.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푸르른 색이 황토색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나는 궁금해졌다. “나무는 어디 있지? 시골의 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흙과 바위와 언덕뿐이었다.

칠레 북부는 사막 지대이니 달리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리하이의 가족이 상속의 땅을 떠나 광야로 여행할 때 레이먼과 레뮤엘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마음에 떠올랐다. 안토파가스타에 도착하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쩌지?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국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수많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옳았다. 특히 영적인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이사하기 전에, 복음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주님은 내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안토파가스타에서, 복음이 지닌 아름다움을 알도록 도와준 여러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했다. 특별한 신권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셨고, 보물과 같은 친구들도 사귀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것에 감사하다.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하다. 내가 가족과 함께 북쪽으로 이사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이곳 사막에서, 나는 여러 변화를 겪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성전에서 결혼하고, 주님께 내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이곳에서 나는 레이먼과 레뮤엘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광야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약속의 땅이 되었다. ■

글쓴이는 칠레 안토파가스타에 산다.

# 신앙은

한 번에 조금씩 생긴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고린도와 성약 64:33

Dear Merilee

ELDER GARY STEVE

Well you have got the big bit  
you, I guess when you get T  
'already be past. I can't be  
16 years old. It seems  
years ago when you us  
red cowboy hat + prau  
only 3/5 or so, but  
Stay sweet + pure  
one know that the cl  
YOU TF



actions speak louder  
+ you do fit your name  
of Honor: HAPPY

Love ya  
Always

Two others  
Gary

don't

et  
e  
EXAMPLE

want  
was  
wouldn't

or you, if  
ords, then  
acted to  
one, but  
y see  
good ser

# 사랑하는 오빠가

# 보낸 편지

메릴리 에스 비 애버렛

리처드 엠 롬니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함

**열** 여섯! 내가 열 여섯 살이 되다니! 나는 '그런데 이 시기를 외롭게 보내게 될 줄이야.'라고 생각했다.

지혜로운 나의 부모님은 친절하셨고, 언제나 내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셨다. 당시에 언니는 막 결혼을 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한 터였고, 11살이었던 남동생은 그 나이 때 하는 걱정거리에 신경을 쏟고 있었다. 내게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은 게리 오빠였다. 십 대 시절에 나는 오빠가 하는 모든 일을 우러러보았다.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오빠랑 얘기를 해 보면 뭐든지 더 이해가 쉽다니까. 오빠가 지금 여기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빠는 내 곁에 없었다. 그는 머나먼 일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나는 게리 오빠가 무척이나 그리웠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생일을 보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의 전통인 생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나는 학교에 가기 전에 선물도 몇 개 받았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피자집에서 저녁을 먹고, 생일 케이크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또 나는 데이트, 운전, 그리고 16살 소녀가 할 만한 신나는 일을 하는 공상에 빠져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우편함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였다. 게리 오빠가 나의 아주 특별한 날을 잊지 않은 것이었다! 이때는 선교사들이 가족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전이어서, 일본에서 미국 유타주 캐시밸리까지 편지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오빠의 편지가 내 생일날에 딱 맞춰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다! 오빠가 손수 적은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마치 오빠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사랑하는 메릴리에게,

나의 16번째 생일날, 오빠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터라 나와 함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빠가 편지로 보내 준 조언은 내가 영원토록 소중히 여길 만한 선물이었다.

너에게 중요한 생일이 다가오고 있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벌써 생일이 지났겠구나. 네가 16살이라니 믿기지 않아! 네가 [나의 조그만 빨간색 카우보이모자를 즐겨 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말이야.

지금처럼 다정하고 순수하길, 그리고 교회가 네게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항상 알려 주길 바라. 그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의 압력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될 거야.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내가 절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파티에는 초대받은 적이 없었지. 친구들은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 ...

네가 사람들에게 네 표준을 알려 주면, 같은 표준을 가진 사람들이 네게로 이끌려 올 거야. 모두에게 말하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행동은 영향력이 크단다. 네 영혼은 정말 명랑하고, 네 이름은 너와 정말 잘 어울려. 그리고 너는 유머 감각도 뛰어나지. 너의 '특별한 열여섯 살(sweet 16)' 생일을 축하해!" 마지막 문장에는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른 어떤 생일 선물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 나는 오빠가 일본에서 돌아와 마침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 편지를 받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그때로부터 많은 것이 변했으나, 오빠를 향한 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날 나는 그를 나의 오빠이자 친구로만이 아니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스티븐슨 장로로 지지한다. 그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세상에 전하는 조언은, 그가 내 16번째 생일날 보내 준 편지처럼 내 인생에 힘을 보태 준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몰몬경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을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발견하고, 인도의 손길을 느끼고, 몰몬경에 대해 자신만의 간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며,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사랑하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에서는 어림잡아 평균 1.7절마다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표현하는 명칭이 나옵니다.<sup>1</sup>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도 이 후기에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이 사심 같이 그것은 참되도다”라는 말씀으로 간증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7:6)

저는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몰몬경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권고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 [몰몬경]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 또한 3, 5절 참조)

여러분은 이 책에서 배우는 진리로 고양되고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로 여러분은 신앙이 강화되고,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며, 스스로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미래를 위해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책에서 배운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기쁨이 배가되고, 이해력이 커지며, 필멸의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몰몬경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See Susan Easton Black, Finding Christ through the Book of Mormon (1987), 16–18.

슬하에 네 아들을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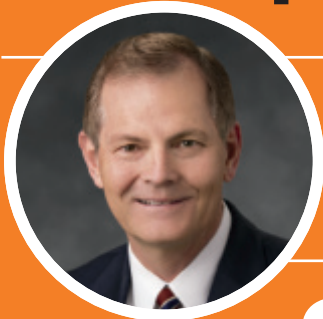
1955년 8월 6일에  
유타주 옥든  
에서 태어남.



9년 이상을  
아시아에서 생활함.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1979년 4월에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리사 진 히글리와 결혼함.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음.

2015년 10월에  
사도로 부름받음.



청남 시절에, 그는 종종  
아버지와 함께 와드 내의  
미망인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봉사함.



아내를  
“내 인생의 햇빛”  
이라고 표현함.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은 것은  
“저절로 무릎 꿇는  
경험”이었다고 말함.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운동 기구 제조 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2008년까지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함.



11살 때, 방울뱀을 밟아  
위험에 처한 그를  
아버지가 구해 주심.

스키와  
스노보드,  
하이킹을  
즐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나고야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청년 성인

선교 사업 도중에 귀환했는가?

그 이유야 어떻든 여러분도  
계속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42

청소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56

개인적인 계시  
니파이의 모범을 따르며

58

어린이들을 가르침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12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개척자**일까요?

친7~10쪽을 찾아보세요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복음을 나누세요

**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 회원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 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사랑하세요.
- ② 계명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세요.
- ③ 복음을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 ④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

「회복된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57~60쪽에서 인용함.



## 사랑으로 권유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옥스 회장님의 각 메시지에 해당되는 그림을 찾아서  
메시지 번호를 써 넣으세요.



# 필립과 함께 기도하기



## 셜리 에스파다 리치

실화에 근거함

“항상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19:38 참조)

**조** 지프는 필립의 집에 처음 갔어요. 둘은 마분지로 우주선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우주선 위에 아주 멋진 불꽃도 색칠했어요. 필립의 엄마가 저녁을 먹자고 부르시자 조지프도 필립을 따라 부엌으로 갔어요.

“내가 식사 전 기도를 드리마.” 필립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조지프는 궁금했어요. 조지프는 필립네 가족이 이마에 손을 대었다가 다음에는 가슴 중간에, 그다음에는 가슴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았어요. 조지프는 누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필립이 손을 내밀었어요. 조지프가 주위를 둘러보니 필립의 가족이 모두 손을 잡고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려는 걸까? “식사 전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이걸 뜻하는 것일까? 조지프는 궁금했어요.

조지프는 필립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필립의 손을 잡았어요. 필립의 아빠가 조지프의 다른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축복해 주소서, 오 주여 ...”

필립과 필립의 가족은 그 전에 했듯이 다시 이마와 가슴에 손을 그은 후에 자리에 앉았어요.

조지프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물으셨어요.

“재미있었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조지프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지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주선은 아주 멋졌고 햄버거도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엄마가 조지프를 더 자세히 바라보셨어요. “괜찮지 않은 것 같구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음 ...”

조지프는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조지프는 계속 그 기도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기도는 왜 조지프네 가족의 기도와 달랐을까요?

“엄마, 엄마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조지프가 물었어요. 조지프는 필립의 가족 기도에 관해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가톨릭 신자인가 보다. 엄마도 예전엔 가톨릭 신자였어.”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성호를 긋고 있었던 거야. 그 표시가 십자가처럼 보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 주는 거란다.”

조지프가 미소지었어요. “그러면 필립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단다.”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필립의 아빠가 기도하시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니?”

조지프는 그 기도를 다시 떠올려 보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하셨어요 ...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알겠지?”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단다. 나는 네가 필립의 가족과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구나.”

며칠 후, 필립이 놀러 왔어요. 함께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오라고 부르셨어요. 부엌으로 같이 달려가는 동안 조지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배가 너무 고파!” 조지프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필립이 말했어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필립은 조지프 옆에 앉았어요. 필립은 성호를 긋고 조지프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기도해.” 조지프가 말했어요. “우리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

“그게 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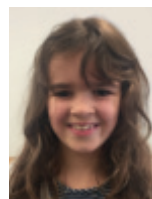
“그게 다야.”

“쉽네.” 필립이 말했어요.

조지프는 눈을 감고 미소지었어요. 조지프는 친구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뻐요.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다.

“say grace”  
(식사 전 기도를 드린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가톨릭교도인 친구도 있고 이슬람교도인 친구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시니까요.

엘리자베스 에이, 8세, 영국 웨스트미들랜즈

# 선행으로 가득한 삶

여기에 있는 세 여성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신약전서 속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읽은 다음, 알맞은 그림끼리 짝지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그녀의 남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모임을 하도록 자신들의 집을 내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8:26 참조)



**루디아**는 보라색 염료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영을 느끼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디아는 여행 중인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사도행전 16:14~15 참조)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옷과 외투를 바느질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사도행전 9:36, 39~40 참조) ●



이 내용은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108쪽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 개척자

작사 및 작곡: 루스 뮤어 가드너  
 편곡: 바나 와이 왓킨스

답대하게 ♩ = 69-76

F

1. 손 수 레 - 끌 며  
 (2. 불) 타 는 - 신 앙

C7 F

밀 며 가 족 남 기 고 수  
 있 어 두 렴 이 기 고 의

C7 F7 Gm

천 마 일 을 결 어 가 는  
 위 해 전 진 하 는 우 리

C7 1. F 2. F

서 부 개 척 자 2. 불  
 서 부 개 척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캄보디아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파올로와  
마고예요.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에  
왔어요. 캄보디아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캄보디아의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나 교회에 갈  
때 부모님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요.  
아니면 **똑똑**을  
타기도 하는데,  
**똑똑**은  
오토바이에  
짐차를 단  
것이에요.



###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약 1,6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 회원은  
14,000명 정도예요.



이건 캄보디아어로 된  
물몬경이에요.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어라는 언어를 써요.  
크메르어는 문자가 무려  
74개나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문자를  
쓰는 언어이지요!

여기 보이는 교회 회원들은  
캄보디아 전통 방식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이런 인사법을  
**삼배아(sampeah)**  
라고 불러요. 손을 더  
높이 올릴수록 더 공손해  
보이죠.





작년에 낸슨 회장님은 캄보디아의 첫 번째 성전이 이 나라의 수도인 프놈펜에 지어질 거라고 발표하셨어요! 성전이 지어지면 이 가족들처럼 많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을 거예요.



캄보디아의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요.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캄보디아의 유명한 불교 유적지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프라혹**을 많이 써요. **프라혹**은 신맛이 나는 짭짤한 생선장이에요. 지금 교회 회원들은 스테이크 센터에서 연차 대회 휴식 시간에 모두가 함께 먹을 국을 큰 솥에 끓이고 있어요.



우리와 캄보디아 여행을 함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 행복해요.  
시넷 비, 6세, 캄보디아 캄퐁툼



저는 선교사님들과 집에서 여러 번 토론을 한 후에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시나 비, 8세, 캄보디아 캄퐁툼

여러분도 캄보디아에서 왔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좋아요!



# 개척자 마라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2018년 10월, 캄보디아 프놈펜

**마**라는 치마 단추를 채우고 거울을 보았어요. 토요일에 안식일 복장을 하는 것이 좀 이상했지만, 이번 토요일은 특별한 토요일이었어요. 연차 대회였거든요!

“여성 총회가 기대되니?” Mak(엄마)가 물으셨어요. 엄마는 마라의 머리를 빠르지만 부드럽게 빗겨 주셨어요. “엄마는 네가 가능한 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

“그렇게요! 연사들이 개척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라는 개척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어요.

“아마 그럴 거야.”라고 엄마가 말씀했어요. “너는 아빠가 개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니?”

마라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빠는 전에 손수레를 끈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개척자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갯길으로 강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가리키셨어요. “아빠는 선교사들을 만나셨을 때 저곳에서 낚시를 하고 계셨어. 아빠는 아빠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짐레받은 사람이었던단다.”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개척자이신 거지! 자, 이제

할머니를 찾으러 가자.”

Yiay(할머니)가 앞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라의 가족과 조부모님은 모두 함께 살아요. 할머니는 마라의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방과 후에 마라를 돌보아 주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그들이 시내로 타고 갈, 모터가 달린 큰 오토바이 옆에 서 계셨어요.

“교회가 캄보디아에 들어온 지 겨우 25년이 되었단다.” 엄마가 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거리로 밀면서 마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개척자인 셈이지. 너도 포함해서 말이야!”

“어떻게 제가 개척자예요?” 마라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면서 궁금해 했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뒤에, 마라를 중간에 앉히고 오토바이를 운전했어요. 마라는 봄비는 거리를 지나갈 때 떨어지지 않게 엄마를 꼭 잡았어요.

카페를 지날 때는 차 향기가 그들 쪽으로 퍼져 왔어요.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마셔요. 하지만 마라는 마시지 않아요. 마라는 지혜의 말씀을 따르니까요. 마라는 활짝 웃었어요. 그게 바로 그녀가 개척자임을 보여 주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오토바이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마라는 불교 사원인 wat(와티)를 보았어요. 빨갛고 뾰족한 지붕이 다른 건물들 위로 솟아 있었어요. 머리를 밀고 주황색 옷을 입은 승려들이 뜰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마라는 캄보디아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라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내가 개척자임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방식이야.' 마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오토바이가 교회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마라는 많은 자매님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걸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끄는 작은 짐차인 tuk tuk[툑툑]을 타고 도착했어요. 많은 자매님이 원피스를 입거나 마라가 입은 것과 같은 평범한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채로운 무늬가 있는 천으로 만든 아름답고 긴 치마인 sampots[삼포트]를 입었어요.

마라와 엄마와 할머니는 다른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실에 앉았어요. 실제로 이 연차 대회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주 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야 크메르어로 방송되는 대회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라는 집에서 영어와 크메르어를 둘 다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불어도 배웠어요. 하지만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어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연사는 개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다음 두 번째 연사는 자신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가파른 흙길을 올라가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길은 "남자애들 길"이라고 했는데, 때때로 그분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갔대요. 개척자들처럼 될 수 있도록 힘든 일을 해내고 싶어서였대요. 마라는 자신도 모든 면에서 개척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미소지었어요.

마지막 연사는 선지자님이었어요. 그분은 깨끗하게 서셨어요. 마라는 귀를 더 쫓긋 기울였어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몰몬경을 읽으시도록 권유합니다." 선지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라는 몰몬경 전체를 읽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주위에 있는 자매님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모두 오늘 밤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마라도 그들이 한 것처럼 선지자를 따를 거예요. 그녀는 개척자가 될 거예요!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산다.

**201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캄보디아에도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머리사 위디슨  
교회 잡지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을 따르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평화의 왕, 선한 목자, 생명의 떡,  
거룩한 자라고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분의 삶,  
기적, 가르침, 영원한 희생을 배웁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영혼이 죄나 세상의  
근심으로 고통받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예수께 돌립니다. 나는 그분이 저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모두 다시 살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면 하셨을 일을 하려  
노력하고 그분의 본을 따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릇된 일을  
선택한 모든 자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평화와 우정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돕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그분을 기억합니다.  
나는 매주 성찬을 취하고  
충실하기로 약속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어 주세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에도 고결합니다.  
나는 정직하고 용감하며 도덕적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 알고 있나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를  
따르는 안디옥 사람들을  
가리킬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6  
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내 침례식에 올래?

올리버는 영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리베카 호그 및 에릭 비 머독  
(실화에 근거함)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올**리버는 그 주가 열린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올리버가 네 살 이후로 손꼽아 기다려 온  
중요한 날이었어요. 올리버가 침례를 받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올리버는 자신의 침례에 너무 들떠서 영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학교에 가서 친구인 딜런에게 말해 주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믿어지지 않아. 내가 침례받을 날이 마침내 다가오다니.”  
올리버가 말했어요. “멋진 침례식이 될 거야!”

“나는 아기들만 침례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딜런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침례받으려면  
적어도 여덟 살이 되어야 해.” 올리버가 말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야.”



“멋지네.” 딜런이 말했어요.

올리버에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침례식에 올래?”

“좋아.” 딜런이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부모님께 여쭙봐야 해.”  
“알았어!”

올리버는 딜런이 자신의 침례식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그때 올리버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침례식에 친구 한 명만 초대하고 싶진 않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올리버는 집으로 달려가 엄마께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침례받기 전 금식 주 일요일에 올리버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올리버는 연단에 올라가 간증을 나눈 후에 말했어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침례받을 거예요. 모든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제 침례식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회원이 아닌 분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을 초대해 주시겠어요?” 올리버는 자신이 선교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느낌은 정말 좋았어요!

그다음 주 동안, 올리버는 자신의 침례식에 친구들과 가족과 선생님들을 초대했어요.

“제 침례식에 와 주실 수 있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토요일이 다가오자 올리버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 너무 바쁘거나 오고 싶지 않으면 어찌지요?

올리버는 초대한 사람 중에 몇 명이라도 오게 해 달라고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후에는 누가 올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을 초대할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은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침례식 날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올리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친구가 올리버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그곳에 와 있었어요. 심지어는 올리버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올리버는 딜런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을 때 손을 흔들었어요.

침례받을 시간이 되자, 올리버는 따뜻한 물속에 들어갔어요. 연습했던 대로 아빠가 올리버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후에 아빠가 짧은 침례 기도를 하고서 올리버를 물속에 잠기게 하셨어요.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올리버는 다시 서 있었어요. 흠뻑 젖은 채로 활짝 웃으면서요. 올리버는 자신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올리버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자, 아빠와 몇 명의 형제님들이 올리버에게 특별한 축복과 함께 성신의 은사를 주셨어요. 나중에 올리버는 자신이 간증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 특별한 날에 제게 힘이 되도록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제가 침례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침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올리버를 축하해 주러 왔어요.

“나를 초대해 줘서 고마워!” 딜런이 말했어요. “좋은 느낌을 받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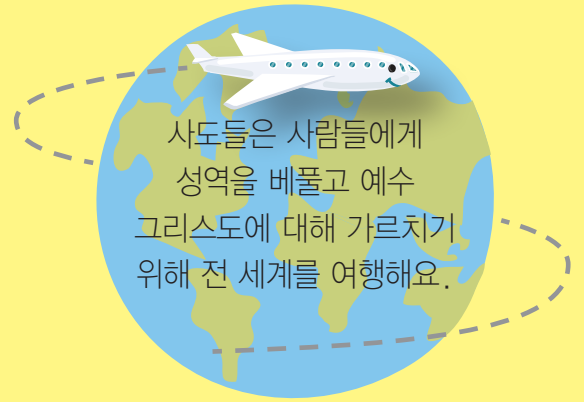
“모든 분이 정말 친절하시구나!” 딜런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주 환영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던단.”

그날 밤, 아빠가 올리버의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정말 멋진 날이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이 함께해 줘서 기뻐요.” ●  
글쓴이들은 영국 켄트와 미국 유타주에 산다.



# 필리핀을 방문한 크리스토퍼슨 장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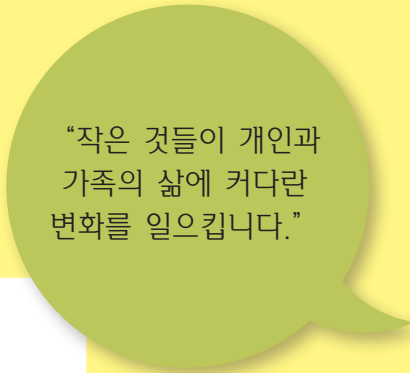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캐시 크리스토퍼슨 자매님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셨어요. 필리핀은 7천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필리핀에는 77만 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살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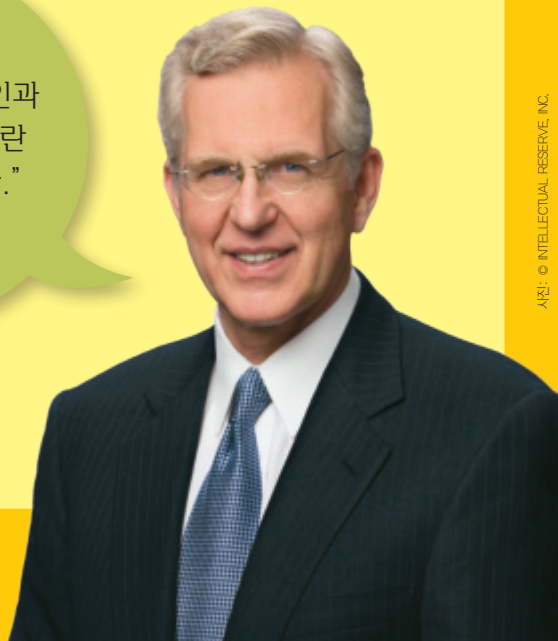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필리핀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필리핀의 수많은 교회 회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빨리 배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들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친절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성역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 숨은그림찾기

필리핀에 사는 마리아와 다니엘은 로라 할머니를 돕는 걸 좋아해요. 오늘 마리아와 다니엘은 공원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어 드렸어요. 할머니는 자신에게 침례를 준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아와 다니엘에게 들려주셨지요. 언젠가 마리아와 다니엘이 선교사가 되었을 때 사용하게 될 9가지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삽화: 데이비드 헬튼

# 어린이 발표



알리츠비에타 케이, 7세,  
체코공화국 즐린 지역



멋진 선물이에요!

테레즈카 제이, 6세,  
체코공화국 즐린 지역



휴가 때 해변에서 만나서 친해진 한 친구가 있어요. 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나호미 케이, 3세, 콩고민주공화국 카사이센트럴주



저는 사람들을 꼭 안아 주는 걸 좋아해요.

이선 엘, 6세, 프랑스 옥시타니



차절의 정원을 위해 우리는 이걸 만들었어요!

아브나히아, 5세, 하치엘 지, 7세, 푸에르토리코

저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버를린 엔, 8세, 필리핀 타틀라크



저는 어릴 때 물을 무척 무서워했어요. 모두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다독여 주었지만,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두려움이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뻐요.

사라 티, 11세, 프랑스 일드프랑스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제3니파이 27:5)

**저**는 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다른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제 아내 아니타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저와 만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다음 3일 동안 저녁 식사를 하러 와도 되지만, 성경만을 사용해서 제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되던 날 밤, 그들이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식료품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와콜로 가족 식료품 가게라고 할 거예요. 제 가게이니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 답을 알았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저에게 이제 딱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언제 침례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침례받았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의 교회 회원이 되었고 그분을 따르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매일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임을 압니다. ●

##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에 순종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지상에서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신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옳은 것을 수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을 읽어 보세요.

#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나누길 바라세요



##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16:15).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든, 이번 호에서 여러분의 가족은 복음을 나눌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잡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단 한 가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우리 가족이 초등학교나 침례식, 교회 활동에 초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 모범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달 동안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가족과 함께 이번 호를 읽으며 각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 가족의 선교 사업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세상을 선으로 가득 채웁시다!

『친구들』

New Friend  
50 E. North Temple St.,  
Room 2393  
Salt Lake City, UT 84105 USA  
liahona@ChurchofJesusChrist.  
org



책 속에 숨어 있는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 목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복음을 나누세요
- 친4 필립과 함께 기도하기
- 친6 선행으로 가득한 삶
- 친7 음악: 개척자
- 친8 안녕하세요? 여기는 캄보디아예요!
- 친10 개척자 마라
- 친12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 친14 내 침례식에 올래?
- 친16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필리핀을 방문한 크리스토퍼슨 장로
- 친18 어린이 발표
- 친19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 친20 경전 이야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친23 색칠하기: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나누길 바라세요